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지 균 지도교수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과 스웨덴의 고등학교 미술교육과정  
비교분석

201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최진아

한국과 스웨덴의 고등학교 미술교육과정  
비교분석

김 지 균 지도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최진아

# 인 준 서

최진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 개요

21세기 디지털 사회,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갖춘 인재육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와 경제구조가 지식·문화교육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문화교육·예술교육의 중요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나라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추구해 나가야 할 핵심 사항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우리나라의 교육 비전과는 달리, 현재 우리의 중등교육은 아직도 입시 위주의 경직된 교육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창의적인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예술교육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9세기 중반 산업화의 초기 단계부터 미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자적인 미술교육 모델과 제도를 확립해왔으며 한국과 같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스웨덴을 비교분석 국가로 선정하였다. 양국의 비교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미술교육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구성으로는 첫째, 미술교육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 이해하고 양국 교육체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역사를 갑오경장이전부터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운영 체제를 탐구하고 셋째, 현행 교육과정인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뒤 2014년 시행예정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중점사항을 분석하였다. 넷째, 오늘날과 같은 스웨덴의 미술교육제도가 확립된 과정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검토해보았다. 다섯째, 현행 양국의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내용을 토대로 비교연구를 하였고 여섯째, 한국 미술교육의 쟁점과악과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면 첫째, 교육과정 운영 체제 측면에서 양국 모두 선택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며, 한국의 고등학교 유형은 다양하고 계열별로 나뉘어져 있는 반면에 스웨덴은 모든 계열이 하나로 통합된 독특한 형태의 통합고등학교이다. 둘째,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술과목의 수업시수와 선택과목의 수 그리고 예술교과군의 범위와 평가등급에서 차이점을 보이는데 시수에 있어서 한국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은 주당 1시간, 선택중심교육과정에서는 주당 2~3시간이 주어지지만 스웨덴은 주당의 시간이 아닌 과목이수의 개념으로 고등학교 3년 동안 예술관련과목을 총 1350credits 안에서 각자의 취향과 기호에 맞게 수강하도록 되어 있다. 선택과목 수에 있어서 한국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는 ‘미술과 삶’, ‘미술 감상’, ‘미술 창작’ 3개인 반면에 스웨덴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난이도와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여 40여개로 선택의 폭이 다양하였다. 예술 교과군의 범위에 있어서 한국은 음악, 미술 두 개 과목을 포함하고 있고 스웨덴은 미술과 디자인, 무용, 미술과 미학, 음악, 연극 5개 과목으로 그 범위가 넓으며 통합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평가등급에 있어서 한국은 상·중·하 3단계이며 스웨덴은 A-F단계로 세분화 되어있다. 셋째, 대학진학 조건과 관련하여 한국은 미대 입시제도가 존재한다. 반면, 스웨덴의 대학진학조건은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와 인터뷰이다. 별도의 사교육 없이 공교육체제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대학진학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제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분한 수업시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다.

둘째,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예술 교과군을 통합한다.

셋째,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의 개념을 바로 잡고 활성화 한다.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어 창의적 정신과 예술적 기량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심도 있게 배우고 나아가 진로를 개척하고 국가와 지구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상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 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	2
II. 이론적 배경 .....	4
1. 미술교육의 개념 .....	4
2. 미술교육의 목적 .....	5
3. 한국과 스웨덴의 교육제도 분석 .....	7
III. 한국과 스웨덴의 미술교육과정 .....	9
1. 한국의 미술교육 .....	9
1) 한국 미술교육의 역사 .....	9
2) 한국의 미술교육과정 .....	18
2. 스웨덴의 미술교육 .....	36
1) 스웨덴 미술교육의 역사 .....	37
2) 스웨덴의 미술교육과정 .....	45
IV. 한국과 스웨덴의 미술교육과정 비교분석 .....	59
1. 비교 분석 내용 .....	59
2. 개선 방안 .....	72
V. 결 론 .....	77

## 참 고 문 헌

## ABSTRACT

## 표 목 차

<표-1> 2007 개정 교육과정 미술과 내용체계 .....	22
<표-2> ‘미술과 삶’의 내용 체계 .....	24
<표-3> ‘미술과 감상’의 내용 체계 .....	25
<표-4> ‘미술 창작’의 내용 체계 .....	27
<표-5> 미적 체험영역 평가기준 .....	30
<표-6>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 및 편성 .....	34
<표-7> 선택 교육과정 과목 .....	35
<표-8> 스웨덴 예술프로그램의 과목편성 및 이수 체제 .....	47
<표-9> 예술과정 필수과목의 핵심내용 정리 .....	50
<표-10> 과정세부선택과목에서 두 영역의 핵심내용 .....	53
<표-11> ‘사진이론’ 과목의 지식 평가 기준 .....	57
<표-12> 한국과 스웨덴 예술교과군의 과목 분야 비교 .....	63
<표-13> 한국의 선택과목 .....	65
<표-14> 스웨덴의 선택과목 .....	65
<표-15> 한국과 스웨덴의 시수 비교 .....	66
<표-16> 생트 에릭스 고등학교(S:t Eriks Gymnasium)수업시간표 .....	69

## 그 립 목 차

<그림-1> 스톨만 방식의 그림 예시 .....	40
<그림-2> 인간, 광고와 소비, 1970 .....	44
<그림-3> 스웨덴 평가등급 B와 D의 범주 .....	56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세계 속에서 교육의 역할이 더욱 크고 중요해 지면서 이러한 시대가 요구하는 인적 자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의식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현 시대적 요구는 공교육에서 예술 교과군의 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가드너(2009)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지적 능력은 언어적 능력이나 논리수학적 능력뿐만 아니라 공간적 지능, 신체 운동적 지능, 음악적 지능 등 서로 독립적이며 상이한 여러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개인마다 잠재된 능력의 유형이 다르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는 특정 영역에 치우치기 보다는 학생의 잠재력을 일깨워 주기 위해 골고루 다루는 한편, 자신의 적성을 발견한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sup>1)</sup>

더욱이 세계는 지식 기반 사회로부터 창의성 기반 경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창의성을 지닌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술교과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문화산업과 같은 정신적 자원의 개발과 창의적 인재 양성이 중요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정책은 안타깝게도 이런 시대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기능적인 주체만을 양산하고 있다. ‘지식 정보화와 세계화 시대에 있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과 경쟁의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그나마 남아 있던 인성·예체능 교육을 최소화 하고 입시위주의 왜곡된 지식교육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

1) 성태제, 체육, 음악, 미술 교과 교육과정 구성 체제 및 내용 국제 비교, 2011

21세기를 준비하는 국·내외 정서가 정보화와 문화시대에 대한 대비로서 디자인 정책이나 정책 강화 등의 미술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현행 교육과정에서 예술교육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문화, 예술 혹은 교육 등은 모두 외부의 흐름과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를 동반하면서 발전하게 된다. 특히 미술교과는 동시대 미술문화의 흐름에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게다가 외국의 미술교육 사조는 우리 미술교육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그런 점에서 외국의 미술문화교육의 흐름과 최근 미술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괴테(Goethe)의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라”는 말은 비교의 본질적 가치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비교의 가치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교육제도를 정확히 인식하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교육선진국인 스웨덴 선정하여 미술교육의 흐름과 교육과정을 비교분석 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미술교육을 정확히 인식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미술교육의 개념 및 목적을 이해하고, 양국 교육제도의 특징을 비교한다. 둘째, 양국의 교육과정 분석을 위해 먼저 한국 미술교육의 역사를 갑오경장 이전부터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운영 체제를 분석한 후, 현행 미술교육과정의 편성·운영체제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과 중점사항을 파악한다. 그리고 스웨덴 미술교육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한 뒤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구성체제와 내용을 분석한다. 셋째, 한국과 스웨덴 고

등학교 분석내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비교분석 한 후, 한국 미술교육의 쟁점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현행 고등학교 미술교육과정의 개선점 제안을 위하여 한국의 교육과정변천 및 개정 교육과정, 스웨덴의 교육과정에 관한 각종 서식, 보고서, 연구논문, 참고자료 등을 수집, 분석, 비교하는 문헌연구로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교육제도와 미술교육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미술교육학회, 선행연구논문, 등을 통해 한국 미술교육의 역사와 현행 교육과정을 분석한다.

둘째, 스웨덴의 교육자료 분석은 주로 스웨덴 학교교육청(Skolverket)에서 발간한 프로그램 메뉴얼, 고등학교 사이트, 교육관련서적, 연구논문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셋째, 양국의 비교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변화되어야 할 점을 제안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미술교육의 개념

“미술은 사회적 생산물이다”라는 J. 볼프의 이 말은 미술이 한 시대를 이해하는 창문과도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공간과 사회현상이 변화함에 따라 미술도 변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미술의 본질적인 개념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의미에서의 미술(fine arts)은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미적표현 일체를 뜻하며, 좁은 의미의 미술, 즉 시각적 미술(visual arts)은 관례상 보통 건축·회화·조각·공예 같은 분야들을 포함'(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96) 정의된다. 또 다르게는 '일정한 세계상(世界像)·인간상을 미적(美的)·조형적(造形的)으로 표현하는 예술'(두산백과, 2012)로 표현중심의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미술은 인간 내면의 감정, 정서, 느낌들을 시각적, 공간적,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이해하며 감상하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문화를 나타내는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미술교육은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미술의 교육(Education of art)'과 '미술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art)'로 나누어진다. 미술의 교육은 예술 속에 미술 그 자체를 중시하여 예술에 관한 전문교육을 통하여 미술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전문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을 말한다. 대학의 전문 미술교육, 20세기 이전의 제도교육, 바우하우스 교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미술을 통한 교육(Education of art)'은 일반적인 미술교육으로서 특정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기능을 가르치기 보다는 미술활동을 통해 미적

감수성을 갖게 함으로써 전인적 인간을 형성하는 것을 미술교육의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는 초. 중등학교 미술과 교육이 이에 해당한다.<sup>2)</sup>

미술교육은 미술의 본질과 교육의 본질이 만나면서 이루어지는데, 미술의 본질은 미적체험에 있으며 이는 체험의 주체인 자아가 체험의 대상인 작품을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교육의 목적이 지. 덕 체가 조화된 바람직한 인간형성에 있다면 미술교육은 미술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인간교육이다. 미술에서 지향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미적 인간’, ‘심미적 인간’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고 잘 느끼며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심미적 인간 육성에 미술교육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sup>3)</sup>

## 2. 미술교육의 목적

시대 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술교육의 목적도 변화한다. 이제 미술교육의 목적은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시대의 미술교육은 우리의 삶과 분리된 학문이 아닌, 학생들의 역동하는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 생명활동의 하나로서 그 의미를 확대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미술교육은 그 연구와 실천대상에 따라 크게 전문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미술전문가들의 양성을 위한 것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취미나 교양, 평생학습을 위한 것, 그리고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과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으로 각급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미술교육의 목적은 이러한 다양한 교육의 관점과 시각에 따라 달라지지만, 여기서는 주로 학교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한다.<sup>4)</sup>

---

2) 김성숙 외,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2007

3) 임정기 외,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2007, p. 17~18

미술교육의 목적은 크게 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도구주의 입장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술교육을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경우가 이에 해당 된다. 또 하나는 미술 자체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본질주의 입장이다.

미술교육의 목적이 미술을 통하여 전인적이고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다면 전인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 시대의 변천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바뀌었지만 미술교육에서 변함없이 추구되어온 인간상은 ‘미적 인간’, ‘심미적 인간’이다. 미술교육의 목적이 삶에서 존재의 본질을 찾는 데 있다면 조형적 경험과 미적 향수 과정은 생활 가운데서 존재의 실상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데서 추구되어야 한다.

미술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교육의 목적은 사물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 본질을 일깨우는 데 있다.

둘째, 미술교육의 목적은 심화된 미적 체험으로 대상을 새롭게 표현하고 소통하면서 자신과 세계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셋째, 미술교육의 목적은 조형능력의 향상을 통하여 온전한 인간형성에 기여하는 데 있다.

넷째, 미술교육의 목적은 학생이 자신의 존재를 일깨워 개성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계발시키는 데 있다.

미술교육의 목적은 생활 세계에서 존재의 본질, 즉 의미를 발견하고 형성하며 인격화해나가는 데서 찾아야 한다. 생활 세계에서 어떤 미적 대상은 나의 체험(지각, 표현)에 의해 의식될 때 그 본질이 드러나고 의미가 형성된다. 이러한 의미형성은 미술 표현으로 구체화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 이 때 나는 현실의 나에서 초월된 또 다른 ‘의미’의 나로 전환되고, 예술의 사회적 성격은 여기서 가능해 진다.<sup>5)</sup>

---

4) 김성숙 외, 전계서, p. 17

### 3. 한국과 스웨덴의 교육제도 분석

스웨덴은 북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고, 교육 분야에서 가장 평등한 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교육적인 실험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나라로 유명하다. 스웨덴의 교육법은 모든 학교 활동이 기본적으로 민주적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하고, 아무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평등과 민주주의는 스웨덴 교육의 근간이다. 그러나 스웨덴교육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1990년대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 시스템의 분권화, 학교선택제와 자율학교설립 허용 등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경쟁의 원리를 강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보수연합이 집권하고 있어도 스웨덴의 기본적인 민주적 교육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sup>5)</sup>

한편, 한국의 교육제도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이었으나, 제6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기 시작한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와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 체제를 통해 기존의 국가로부터의 획일적이고 지시적이며 일방적이던 교육과정의 운영·편성으로부터 국가, 지역, 단위학교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발전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지향하는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지식 정보화와 세계화 시대에 있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과 경쟁의 확대’로 요약 할 수 있다. 즉,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시장원리에 입각한 교육체제, 경쟁을 통한 교육의 수월성과 효율성 추구, 학교 선택권의 다양화, 입시정책의 자율화 등의 개혁정책이 추진되었다. 교육 영역에서 시장주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능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공동체

5) 임정기 외, 전제서 p.31~34 발췌 요약

6) 이규환, 주요국의 교육제도, 2010,

의식, 자아성장과 사회적 성숙을 이루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약화시키게 만드는 지름길이다.<sup>7)</sup>

---

7) 유현옥, 이명박 정부 교육경쟁력 강화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2009, pp,175-193

### Ⅲ. 한국과 스웨덴의 미술교육과정

#### 1. 한국의 미술교육

한국에서 근대 예술교육이 시작 된지도 한 세기가 지났다. 미술교육은 그동안 여러 가지 역사적 어려움 속에서도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 왔다. 문화, 예술 그리고 학문 등은 모두 외부의 흐름과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를 동반하면서 발전하게 된다. 특히, 미술교과는 동시대 미술문화의 흐름에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한국 미술교육의 역사에는 외국의 미술교육의 영향을 크게 받아 왔다. 이번 장에서는 한국 미술교육의 역사에서는 갑오경장 이전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인 2007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2014년 시행 예정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탐색을 통해 한국 미술교육과정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 1) 한국 미술교육의 역사

###### (1) 갑오경장 전후 미술교육(1895~1910)

조선시대의 미술교육활동을 표현영역과 감상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현 영역에서는 그림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도화서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정식화원이 아닌 훈련생으로서의 생도는 화본을 통한 모사와 실물사생, 풍경사생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선시대의 그림에는 인물화, 기록화, 산수화, 화조화 등 여러 장르가 있었다. 이것을 감상중심의 그림과 실생활을 장식하는 실용화로 구분할 수 있다. 감상 중심의 그림은 문인화가 주류라 하겠다. 선비들이 자신의 내면세계와 풍류를 문인화를 통해 표현하였는데 이것이 당시 이

상적인 인간을 기르는 데 하나의 도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면은 오늘날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과 사상적 유사성이 있다고 하겠다.<sup>8)</sup>

그러나 미술이 사대부와 특정계급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것에서 본격적인 학교교육으로 공포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였다. 고종은 비실용적인 경전 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실용적 교육을 보급함으로써 국가 중흥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교육을 통하여 국가의 부흥시키고자 소학교령(小學敎令)을 발표하고, 그에 의해 미술과 교육도 제도적 학교 교육으로서 1895년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소학교령과 소학교교칙대강의 공포에 의해 학교 교육이 정식으로 시작되어 심상과의 교과목인 습자, 도화, 수공 등의 과목이 다루어지게 되었는데 임화에 의한 모방교육이 일반적으로 행해졌다.<sup>9)</sup> 그러나 1895년부터 미술교육이 기존의 서당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근대적 의미로서의 새로운 교육제도를 갖추고, 소위 신교육의 형태인 습자와 도화교육을 구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때 설립된 학교가 한성사범학교로서 초등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같은 해에 부속초등학교를 개교하여 한국 최초의 공식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신교육을 담당하였다. 당시 소학교령(1895.7.19 고종32년, 칙령 제 145호)에 공시된 심상과의 교과목인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체조 가운데 미술교육은 습자가 들어 있는 정도였고, 도화는 체조를 대신 추가할 수 있는 과목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도화는 필수과목으로 시행되었다기보다는 선택과목으로서 후일의 필수과목으로 자리 잡아가는 초기 미술교과의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

통감부는 1906년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개칭하고 교과편제도 바꾸었다. 보통학교 교과목은 수신, 국어, 한문, 일어, 산술, 지리역사, 이과 그리고 도화과와 체조과로 하고 여자에게는 수예를 더하였다. 이때부터 수공과는 수의과목으로 교과교육으로서 행해졌다.

---

8) 권성연, 조선시대 미술교육에 관한 연구: 회화 영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국 교원대학원, 1996

9) 홍순무,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전주대학교논문집. 1995. p51

여기서 도화과는 기능중심의 교육이었고 수공과는 실용에 중점을 둔 노작교육이었다. 미술교육의 이러한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제도와 교과개설을 개화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2) 일제 강점 시대의 미술교육(1910~1945)

우리나라에서는 근대화가 외국의 침략과 함께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근대’란 역사적인 진보성을 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근대’ 자체가 식민지화 정책에서 진행되어 진보적인 성격과 함께 억압적인 성격도 동시에 지니게 되었다. 즉 근대화가 반대로 국가 설립의 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근대교육’역시 국민 억압의 역사로 부정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10)

당시의 시대상황은 나라의 근대화가 시급함에도 위정자들의 끊이지 않는 권력다툼과 내부의 혼란, 외세 열강들의 지나친 내정간섭과 그로 인한 지지 세력의 분열 등으로 어지러웠다.

일본은 1910년 한일합방을 하면서 한반도에서 식민지 정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1911년 8월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식민지 지배의 도구화 방편으로 교육을 시행했다. 1945년 종전까지 식민지 지배기간동안, 4차례에 걸쳐 조선교육령이 개정, 실시되었는데 이에 따라 한국 미술교육도 단계적으로 변화를 거듭하게 된다. 조선교육령은 크게 보통교육, 실업교육 및 전문교육의 세 종류로 구분되었는데 보통학교의 목적으로서 보통의 지식, 기능을 교수하고 특히 국민(일본국민)된 성격을 함양하고 국어(일본어)를 보급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조선교육령의 개정에 따른 미술교육의 변화를 살펴보면 근대적인 미술교육은 제 2차 조선교육령기인 1920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임화’를 배

---

10) 윤건차, 한국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 청사출판사, 1987, p. 418

척하고 ‘자유화’ 교육의 영향을 받은 ‘사생화’와 ‘상화’ 교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재료적 측면에서는 붓이나 연필에서 벗어나 색연필, 수채화 물감 등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제 3차 교육령은 이미 만주사변(1931년)과 중일전쟁(1937)등 일본의 대륙침략을 위한 전쟁수행이 시작된 시기여서 그 상황에 맞는 정책이 도입되었고 조선에서 식민지 교육은 군국주의적 색채가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 교재 영역들은 근대적 교육의 틀 안에서 표현, 감상, 설화의 영역으로 나눈 것과 임화를 밀어내고 사상화(思想畵)와 사생화를 중시한 점이 눈에 띈다.<sup>11)</sup>

제 4차 교육령은 1941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침략야욕이 극대화 된 시기에 공포되었다. 도화 및 수공은 음악, 습자와 함께 ‘예능과’라는 통합교과로 편입되고, 학생발달심리와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편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시체제이기 때문에 생산적이고 실리적인 만들거나 기계조작 등 기술 중심의 미술교육이었다.<sup>12)</sup>

이상에서 1910년 한일합방에서 제 2차 세계대전의 종료로 일본에서 해방(1945)되기까지의 한국미술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근대미술교육은 근대라는 단어가 갖는 긍정적인 의미의 진보라기 보다는 군국주의와 국가주의의 수단으로 전략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이미 자유화의 영향으로 창조주의, 개성주의, 아동중심주의가 유행하고 있었으나 식민지 지배하의 우리나라는 깨어있고 자유로운 표현이 아닌 여전히 사실주의에 의한 손의 기술을 중시한 임화중심의 묘사나 기억화, 사생화나 공작교육이 강조되었다.

### (3) 해방 이후 미술교육(1945~1953)

일본의 패전과 함께 한국은 광복을 맞이하게 되자 일제 식민지 교육도 끝나

11) 박휘락, 한국 미술교육사: 미술교육100년의 흐름, 예경, 1998

12) 임정기 외, 전개서, p. 92

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자력이 아닌 연합군에 의한 해방이었기 때문에 한반도는 남북 분단이라는 비운에 처하게 되면서 미군정이 시작되고 우리는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로서 우리 교육계는 민주주의 새 교육을 실시하면서 창조주의 미술교육을 도입하게 되었다.

광복 후 한국교육은 3년간의 미군정에 의해 준비되고 계획되어 기초를 마련하였다. 1946년 교육심의회 결의에 따라 ‘도화·공작’과로 불리던 교과명칭이 ‘미술’로 바뀌었다. 미군정은 계속해서 ‘교수요목(教授要目)’을 제정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시도했다. 교수요목기(1945.8-1954.4)는 일제에 의한 전제·군국주의 교육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술교육을 향한 교육개혁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49년 12월 교수요목을 제정하였으며, 교과목의 분과주의 채택 및 지도 내용의 표시, 기초 능력 및 지력의 배양, 홍익인간의 애국애족의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민족적 전통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큰 가치를 두는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하려는 중 한국은 6.25 전란으로 교육이 일체 중지되었다.

6.25 사변의 전세가 어느 정도 회복됨에 따라 1945년 8월부터 1954년 9월에 이르러 미국의 교육 사절단이 3차례에 걸쳐 내한한 하였고 1956년 10월에는 피버디(peabody) 교육 사절단을 유치하였다. 이들에 의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창조주의 미술교육 이론과 공작 교수법 연수를 통해 침체된 교육에 활로를 모색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미술교육 사상은 1955년 제 1차 교육과정에 크게 반영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발전하게 된다.

#### (4) 미술과 교육과정의 변천

우리 정부는 전세가 회복됨에 따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과정 제정을 서두르게 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1차부터

2009년 개정 교육과정까지 아홉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변천해 왔다.

### ① 제 1차 교육과정(교과중심 교육과정:1955-1963)

제1차 교육과정은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 35호로 제정, 공포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이 발표된 후 그 이듬해인 1955년 8월 1일자로 문교부령 제 45호로 고시된 최초의 교육과정이다.

이 당시 미술교육은 제 4차 교육사절단(1956.10~1963.6)인 미국 조지 피버디 사범대학교교육사절단(단장 W. E. Goslin)이 문교부에 상주하면서 전국 사범대학 미술교사들에게 창조주의 미술교육의 이론과 미술교육과 이념, 미술교육의 목표, 미술교육의 내용, 방법, 평가와 새로운 아동중심의 미술교육을 소개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당시 새 교육운동으로 등장한 경험 중심 교육을 표방하였다. 그 특징으로는 첫째, 주지주의적인 것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이해, 기능, 태도, 습관을 기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둘째, 암기하는 학습에서 이해하는 학습, 이론적인 학습에서 노작하는 교육으로 전환하려 했다. 셋째, 교재내용 선택은 일상생활에 가까운 것을 취하며 세부적인 것은 피하고 학생의 능력에 맞도록 정도를 낮추었다(문교부, 1954).

1차 교육과정은 우리나라가 만든 최초의 교육과정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고,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 생활 중심 교육과정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교육과정으로서의 특징이 있다. 그러나 교사들이 가르치고 학생들이 학습하는 교육 내용의 총체를 담은 국가 기준으로서 교육과정령의 체계, 진술 형식 등 여러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sup>13)</sup>

### ② 제 2차 교육과정(경험중심 교육과정:1963-1972)

제 1차 교육과정의 명칭인 「교과 과정」 이 개칭되어 1963년 12월 15일에 문

---

13) 임정기 외, 전게서, p. 93

교부령 제 119호로 「교육 과정」으로 공포되었다. 제 2차 교육과정은 <경험주의 교육과정>이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 교육과정에서는 자기감정을 아름답게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풍요로운 인간상을 지닌 자주적 민주시민 양성을 교육의 이념으로 도입하였다.

고등학교의 미술과 교육 목표는 미술이해와 미적 정서에 의한 교양과 인격 함양, 조형능력의 생활에의 활용과 환경미화, 미술의 경제적 가치 이해와 산업 발전에의 기여, 조형품의 가치와 의의 이해에 두었다.

2차 교육과정의 체제 및 목표는 전인교육의 입장에서 역동적인 인간형성을 꾀하고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교육목표를 세워 어디까지나 학생을 중심으로 조형 활동을 전개하여 유능한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자질을 육성하는데 두었다.

제 2차 교육과정기는 외국의 미술 사조를 단순히 흡수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춘 미술교육을 정립하기 위해 교과 목표와 내용을 체계화 하는 등 미술교육에 많은 발전이 있었던 시대였다.<sup>14)</sup>

### ③ 제 3차 교육과정(학문중심 교육과정:1973-1981)

1973년 2월 14일 문교부령 제310호로 개정, 공포된 3차 교육과정은 당시 미국교육계를 주도한 이른바 학문중심 교육과정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기존에 만들어진 지식에 대한 이론과 방법, 즉 ‘생활’ 혹은 ‘경험중심’이 그 당시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해 하에 미국에서 새롭게 전개된 교육 사조를 도입하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증가되어 가는 지식을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식의 기본 개념과 원리 및 지식의 구조화를 통해 발견하고 탐구하는 학습에 역점을 두었다.

---

14) 임정기 외, 전게서, p. 94

④ 제 4차 교육과정(인간중심 교육과정:1981-1987)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 424호로 확정 고시된 제 4차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교육 목표는 인간 중심 교육과정과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이념을 상호 결합시켜 학문, 경험, 인간을 조화 있게 다루는데 있다. 이로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급변하는 산업화 사회에 대한 인간성 회복과 국민들의 정신교육을 강화하는데 있다.

미술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첫째, 국민 정신교육을 강조하였다. 둘째, 창의성 발달을 강조하였다 셋째, 미적 정서를 강조하였다. 넷째, 교육의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미술의 여러 가지 면모를 폭넓게 경험하도록 포괄성을 강조 하였다.

제 4차 교육과정은 미술 교과를 통해 전인적 인간 육성을 목적으로 창조성과 미적 정서를 목표로 삼았다. 자연물을 포함한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보고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으로 미술을 통한 인간성, 심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⑤ 제 5차 교육과정(통합적 교육과정:1987-1992)

1987년 개정된 제 5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적정화, 내실화, 지역화를 개정 방침으로 하여, ‘종래의 교과 중심, 생활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교육과정의 장점을 조화 있게 체계화하여 미래 사회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 창조적, 도덕적인 한국인을 육성한다’라는 기본 방향 아래, 미술과에서는 첫째, 교과목표 및 지도내용, 지도 및 평가 상의 유의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의 방향을 구체화시키며, 둘째, 명문화된 교육 과정의 진술에서 그 내용 및 의미 전달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개선의 방향을 마련하고, 셋째, 미술과의 목표가 현대 미술의 흐름에 부합되고 한국적 교육 이념의 구현에 적합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인간상의 목표가 뚜렷하게 부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⑥ 제 6차 교육과정(통합적 교육과정:1992-1997)<sup>15)</sup>

제 6차 교육과정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1992년 9월 30일 고시되었다.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의 육성을 위해 민주시민 공동체 의식, 변화에 대한 창조적 대응 능력, 학습자의 경험 세계의 중시, 교육 현장과 창의성, 자율성의 확대 등을 개정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교육과정이다. 제 5차 교육과정의 부분적인 개정, 보완을 통하여 미술과 교육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전인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성, 창조, 개성교육을 강조

둘째, 미술과 생활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감성적 체험을 강조

셋째, 초등학교와의 연계성을 살리기 위해 목표 및 내용 구성을 체계화

넷째, 미술과 교육 내용의 학년별 연계성을 강조하고 위계성을 나타내기 위해 내용을 보다 구체화, 체계화

다섯째, 미적 감성을 계발하고 미적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표현 활동과의 연관성을 살린 감상지도에 유의

여섯째, 우리나라 전통미술을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전통 미술 지도를 더욱 강조

일곱째, 지도 방법이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나 제시를 통하여 현장에서의 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⑦ 제 7차 교육과정(선택 중심 교육과정:1997-2007)

제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편성(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 고등학교 2, 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도입,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재량활동 신설 및 확대, 교과별 학습량 최적화와 수준 조정,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 확립,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창의성

---

15) 교육부,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해설 pdf 1992. 발췌 요약

및 정보 능력 배양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제 7차 미술과 교육 과정은 세계화·정보화 시대가 될 21세기에 주도적이고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고자 목표 면에서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 기본 교육에 충실하고, 내용 면에서는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을 신장하며, 운영 면에서는 학생의 능력·적성·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교육을 실천하고, 제도 면에서는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미술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주당 2단위를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2, 3학년에서는 체육, 음악, 미술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에 기초하여 미술 교과에서는 학생으로 하여금 개성, 창조, 정서 교육으로서의 미술 교과의 성격을 더욱 강조하면서 내용 구성에서도 필수 학습 요소 및 활동 중심으로 지속적, 계열성, 통합적인 성격을 확대하여 지속하고자 하였다. 16)

## 2) 한국의 미술교육과정

### (1) 2007 개정 교육과정

한국의 현행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2011년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오는 2013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미술교육과정의 동향을 살펴기 위해 2007개정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주로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을 참고하였다.

앞서 살펴본 제 1차에서 7차 교육과정까지는 국가 교육과정을 전면적, 일시적으로 개정하여 국가·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반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교육내용의 지속적 개선, 국

---

16) 교육부, 7차 고등학교 미술과 해설서, 1997, p. 17

민 각계각층의 교육과정 개정 요구를 탄력적·체계적으로 반영하고자 수시개정 체제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개정을 최소화 하였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두드러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업시수의 일부 조정, 교과집중 이수제 도입,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등이다. 즉,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라 학교급별로 자율적으로 수업시수를 감축, 교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 이수가 가능하도록 ‘교과 집중 이수제’도입, 선택과목의 효율적인 편성·운영을 위해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의 구분을 폐지하여 선택의 폭을 넓힘, 아울러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을 6개 과목군으로 분류로 정리 할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미술은 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유지 하였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2, 3학년에서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크게 둘로 나누어 목표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2007년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은 미적 인식 능력의 체계적 계발, 시각 문화 학습의 중요성, 교육과정의 명료화, 미술 교과 내외의 통합적 경험의 수용 등 개정의 기본 방향에 따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의 중점을 두었다.

첫째,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표방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2, 3학년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체제를 유지하며 미술과 교육과정을 일관성 있게 구성하도록 한다.

둘째,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강조되었던 개성, 창조, 정서 교육으로서

미술교육의 성격과 함께 미술교육의 사회적, 문화적 성격을 강조하도록 한다.

셋째, 미적 정서와 미적 인식 능력을 종합적으로 길러 줄 수 있도록 미술과 목표를 구성하도록 한다.

넷째, 미술과 목표는 총괄 목표와 학년 군별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고등학교는 가치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내용 영역별 목표를 구성하도록 한다.

다섯째,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 구분의 내용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영역의 필수 학습 요소를 선정할 때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도록 한다.

여섯째, 시각 문화에 대한 학습이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에서 고르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일곱째, 미술과 내용이 학년 군별로 계속성, 계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영역별 세부 내용을 학생들이 나타낼 성취 목표 형태로 진술하도록 한다.

여덟째, 새롭게 바뀐 목표와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가를 안내하고, 미술 교사가 교수·학습과 평가를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항목별 지침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 가) 목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미술과 목표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기간을 마쳤을 때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총괄 목표와 내용 영역별 하위 목표, 고등학교 목표로 구체화하여 구성하고 있다.

총괄 목표는 ‘미술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미적 감수성, 창의적 표현 능력, 비평 능력을 기르고, 미술 문화를 향수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이며, 미술과의 총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목표로서 미술과의 내용인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과 관련된 3개의 하위목표와 이를 종합하는

1개의 하위 목표로 총 4의 하위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대상과 현상에 대한 미적 감수성을 기른다.
- 둘째,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셋째, 미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넷째, 미술을 생활화하여 미술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고등학교 1학년은 국민 공통 기본교육의 마지막 단계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의 지식과 태도 및 경험을 바탕으로 미술에 대한 보다 확대된 시각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고등학교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생활 속에서 미술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치를 판단한다.
- 둘째, 표현 활동의 탐색, 확장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한다.
- 셋째, 미술 작품을 판단하고 미술 문화에 참여한다.

#### 나) 내용

제7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학습 분량을 최적화하고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 하기 위하여 내용 구성의 틀을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의 세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필수 학습 요소를 선정하여 내용을 구조화 하였다. 또한 생활과 관련하여 미술에 대한 기본적인 교양과 미적인 안목을 향상시키는 한편, 미술을 문화로 이해하는 문화적 소양을 계발시키기 위하여 점차 감상 활동을 강조하도록 한다. 미적 체험 영역에서의 학습 내용은 시각 환경의 사회 문화적 가치를 생각해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표현 영역에서는 표현의 기초적인 능력과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을 하는데 초점을 두며 주변의 미술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상 영역에서는 미술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 활동을 체험하고, 반성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두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2007개정 교육과정 미술과 내용체계

<p>미적체험</p>	<p>가. 자연 환경 -자연 환경과 조형 의식의 관계를 이해한다. ① 자연 환경에 따른 조형 의식의 변화에 관하여 알아보기 ② 생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토론하기</p> <p>나. 시각 문화 환경 - 시각 문화 환경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판단한다. ① 시각 문화 환경이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에 끼치는 영향에 관하여 알아보기 ② 시각 문화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미술 관련 직업에 관하여 토론하기</p>
<p>표현</p>	<p>가. 주제 표현 -새로운 주제, 표현 방법,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한다. ①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주제로 나타내기 ② 여러 가지 목적, 조건, 효과 등을 고려하여 나타내기 ③ 재료와 용구를 확장해서 다양한 표현 방법이나 매체로 나타내기 ④ 다른 교과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나타내기</p> <p>나. 표현 과정 - 표현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 계획에 반영한다. ①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기 ② 표현 과정에 대한 평가를 새로운 작품의 계획에 반영하여 나타내기</p>
<p>감상</p>	<p>가. 미술 작품 -미술 작품의 다양한 가치를 판단하고 감상한다. ① 시대와 지역에 따른 표현 양식과 미적 가치를 이해하기 ② 미술 작품의 다양한 가치에 관하여 토론하기 ③ 비평의 형식을 알고 비평문 쓰기</p> <p>나. 미술 문화 -미술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① 전통 미술의 계승과 발전 방안을 찾아보기 ② 전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문화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p>

## ② 선택 중심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심화 선택 과목을 강조하여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의 미술 및 예술 관련 진로와 적성을 계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아울러 교양을 증진하고 실생활과의 연관성을 추구하는 과목”으로 개설 되었다.

2007 개정 미술과 선택 과목은 국민 공통 미술 교과와 내용상 연계성 강화,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 운영의 현실 고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예술, 문화 소양 육성을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한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선택 과목의 개정 중점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술 교과의 선택 과목은 국민 공통 미술 교과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선택과목들 간에도 구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즉, 1학년 미술교과에서 주요 영역인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의 각 영역은 선택과목에서의 미술과 삶,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연계성을 가지며 미술 영영을 균형 있게 경험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 운영 방식은 일반 과목 이수 후에 심화 과목을 이수해야 했다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과목의 이수 순서의 제한이 없어졌다. 즉, 일반 선택과 심화 선택을 통합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세 과목으로 넓혔다.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위의 세 과목 외에도 전문 교과를 이수하거나 필요한 교육청 및 단위 학교에서 필요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둘째,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술과 삶’, ‘ 미술 감상’, ‘미술 창작’의 세 과목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학문적 경향에 비추어 제7차 교육과정 미술과의 심화 선택 과목명인 ‘미술 이론’과 ‘미술 실기’가 미술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인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론’과 ‘실기’를 재검토 하여 과목명을 ‘미술 감상’과 ‘미술 창작’으로 변경하였다.

셋째, 미술과 선택 과목의 내용은 실제 미술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 미술 교과가

일반 교육으로서 좀 더 통일되고 일관성있게 미술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교육 내용을 구조화했다면, 선택 과목은 미술을 보다 다양하게 경험하도록 하는 심화 내용으로서의 교육 내용의 구성 방식을 다양화하였다.

다음은 위에서 살펴본 교육과정의 방향과 중점을 바탕으로 국가가 제시하는 3개의 선택 과목인 미술과 삶, 미술 감상, 미술 창작을 목표와 내용 체계 중점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가) 미술과 삶

㉠ 목표

‘미술과 삶’의 총괄 목표는 미술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문화인으로서의 소양과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하위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활용한다.

둘째, 시·공간에 따른 미술의 변화와 흐름을 이해하고, 새로운 내용과 방법을 창조적으로 활동한다.

셋째, 자신의 삶 속에서 미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가진다.

㉡ 내용

<표-2> ‘미술과 삶’의 내용 체계

<p>(1) 미술의 기능</p>	<p>가. 미술과 언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의 개인적 표현과 사회적 소통기능 이해하기</li> <li>- 개인적 의미와 현대의 사회적 현상 등을 시각이미지나 미술 작품으로 제작하기</li> </ul> <p>나. 미술과 디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을 디자인하고 개선하는 미술의 기능 이해하기</li> </ul>
-------------------	--

	- 생활 용품, 생활 공간 등을 계획하고 제작하기
(2) 미술의 변천	가. 미술의 의미 - 시대별, 지역별 미와 미술의 시각 변화 이해하기 - 미와 미술의 다양한 시각을 보여 주는 작품 제작하기 나. 미술과 테크놀로지 -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른 미술의 변화 이해하기 - 새로운 재료와 매체를 활용하여 작품 제작하기
(3) 미술의 확장	가. 미술과 작업 - 다양한 직업에서 미술의 활용 조사하기 - 진로와 관련된 직업군을 조사하고 진로 계획 세우기 나. 미술과 통합 - 미술과 다른 분야와의 통합의 의미 이해하기 - 다양한 통합 방안을 미술에 적용하기

## 나) 미술 감상

### ㉠ 목표

‘미술 감상’의 총괄 목표는 ‘미술 감상 활동을 통하여 미술에 대한 비평 능력과 심미적 안목을 길러 미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이며, 총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적 대상의 특성을 관찰하고 이해한다.

둘째, 미술 감상과 비평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셋째, 비평적 관점에 근거하여 미적 가치를 판단하고 활용한다.

### ㉡ 내용

#### <표-3> ‘미술 감상’의 내용 체계

(1) 관찰과 반응	가. 직관적 감상 - 미술 용어를 활용하여 미적 대상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이야기하기 - 감상 대상에 대한 느낌과 생각의 차이에 대해 토론하기 나. 현장 체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주변, 미술관, 박물관, 작가 스튜디오 등에서 미술을 감상하기</li> <li>- 학교 및 지역 미술 행사에 관심 갖고 참여하기</li> </ul>
(2) 분석과 해석	<p>가. 조형적 특성 이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형 요소와 원리, 재료와 기법 등을 분석하기</li> <li>- 작가 양식, 시대 양식, 민족 양식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li> <li>- 감상 대상의 형식적, 양식적 특성에 기초하여 정보를 해석하기</li> </ul> <p>나. 미술가 탐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가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li> <li>- 미술가의 개인적 경험, 성장 배경, 표현 특성의 관계 이해</li> <li>- 미술가가 지역, 사회, 미술계에 미치는 영향 해석하기</li> </ul> <p>다. 맥락적 이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대별, 지역별 미술의 특성 비교 분석하기</li> <li>- 감상 대상을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하기</li> <li>- 시간, 장소, 환경에 따른 감상 대상의 의미 변화 이해하기</li> </ul>
(3) 판단과 활용	<p>가. 미술 비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이나 미술가에 대한 비평의 관점에 대하여 토론하기</li> <li>- 비평 관점을 활용하여 비평문 작성하기</li> </ul> <p>나. 감상의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가 있는 전시 기획하기</li> <li>- 감상 대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보여주는 작품 감상집, 포트폴리오 등을 제작하기</li> </ul>

#### 다) 미술 창작

##### ㉠ 목표

‘미술 창작’의 총괄 목표는 ‘조형 언어와 매체를 이해하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이며, 총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표현 주제와 발상 방법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둘째, 다양한 매체와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새로운 매체를 탐색하여 표현한다.

셋째, 작품을 비교 분석하고 새로운 표현에 적용함으로써 창작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내용

<표-4> ‘미술 창작’의 내용 체계

<p>(1) 주제와 발상</p>	<p>가. 표현 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적 맥락에서 주제, 상징, 아이디어의 변천,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기</li> <li>- 작품에 나타난 상징성을 현대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표현하기</li> </ul> <p>나. 발상과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상의 기본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기</li> <li>- 다양한 발상 방법을 활용하여 표현하기</li> </ul>
<p>(2) 매체와 표현</p>	<p>가. 평면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면 표현의 재료와 용구, 제작 과정 등을 이해하고 표현하기</li> <li>- 평면 표현의 특징을 살려 작품을 제작하고 발표하기</li> </ul> <p>나. 입체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체 표현의 재료와 용구, 제작 과정 등을 이해하고 표현하기</li> <li>- 입체 표현의 특징을 살려 작품을 제작하고 발표하기</li> </ul> <p>다. 매체의 확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 미술과 현대 미술의 재료와 기법을 이해하고 발전시켜 표현하기</li> <li>- 새로운 매체를 탐색하여 표현에 적용하기</li> </ul>
<p>(3) 분석과 적용</p>	<p>가. 작품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의 제작 의도를 파악하고 재료와 표현 방법을 분석하기</li> <li>- 작품 분석을 통해 조형 방식의 차이와 소통의 의미를 파악하기</li> </ul> <p>나. 작품의 재발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의 작품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기</li> <li>- 작품 평가에서 얻은 개선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제작하기</li> </ul>

라) 평가방식

미술과목의 평가는 미술 학습 내용 및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도를 파악함으로써 목표한 바를 달성 했는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해 지도 계획이나

교수 학습 과정 등을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개선하며, 나아가 미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미술과 목표는 “미술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미적 감수성, 창의적 표현 능력, 비평 능력을 기르고, 미술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대한 성취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는 학습자가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신의 능력을 얼마만큼 표출, 또는 수용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 그 특성이 있다. 미술 교육의 목적은 전인적인 인간성의 계발과 육성에 있다. 따라서 미술과목의 평가는 수량화 하거나 학생의 작품만을 살펴보고 평가하여 점수를 매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미적 체험을 통하여 성장해가는 인간 형성 과정과 조형적 태도에 더 관심을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sup>17)</sup>

위에서 살펴본 평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 미술과목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㉓ 평가 계획

- 평가 목표와 내용은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영역별 내용을 근거로 설정하되,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고려한다.
- 평가 내용이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되, 영역 내에서도 학습자의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균형 있게 평가 한다.
- 평가 기준을 학습자들에게 미리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자신의 평가 결과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㉔ 평가 방법

-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학습 태도, 과정 및 결과를 균형있게 평가한다.
- 평가 방법은 평가 목적과 평가 내용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며, 타당하고, 신뢰도, 객관도가 높은 평가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한다.

---

17) 임정기 외, 전제서, p. 275

- 지필 평가, 관찰법, 감상문, 토론법, 연구보고서법,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실기 평가, 감상문,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 수행 평가는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실시한다.
- 실기 평가의 내용, 과제, 매체 등은 학생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시하되, 되도록 선택의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도록 한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있는 3개의 선택 과목은 각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방법에 차이를 두었다. 예를 들면, ‘미술 감상’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평가와 중복되는 항목이외에 ‘미술 작품과 시각 이미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학습자들이 자신의 관점과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를 추가하여 ‘미술 감상’교과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평가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평가 방법에 감상문, 비평문 등의 글쓰기 형식과 구두 발표, 토론 등의 말하기 형식 등을 추가로 포함하여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평가 계획과 방법들을 통해 나온 평가 결과는 누가 기록하여 개인별 성장 수준을 파악하는 자료로 사용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성취 정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되도록 하며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한편, 한국은 제7차 교육과정부터 우리 사회의 획일성과 경직성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고려한 평가를 하고자 수행평가제를 도입하였다. 수행평가란 평가자가 학습자의 학습 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식을 말한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작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미술과의 성취기준 과 평가기준 중 미적 체험의 일부를 제시하면 <표-5 >와 같다.

<표-5> 미적 체험영역 평가기준

성취기준	평가기준		
	상	중	하
자연 환경이 조형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자연 환경이 조형 의식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자연 환경이 조형 의식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이해한다.	자연 환경이 조형 의식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부분적으로 이해한다.
자연 환경에 따라 조형 의식이 변화하는 예를 찾을 수 있다.	자연 환경에 따라 조형 의식이 변화하는 다양한 예를 찾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자연 환경에 따라 조형 의식이 변화하는 예를 찾아 설명한다.	자연 환경에 따라 조형 의식이 변화하는 예를 찾아 설명하는 데 미흡하다.
조형 활동에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조형활동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조형 활동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한다.	조형 활동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극적이다.

이러한 기준은 학생의 성취가 의도한 목표에 도달 하였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써 지역 및 학교 실정과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재구성하여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 (2)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2014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2009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한국 미술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주로 2009년 12월 13일 개정 고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을 참고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첫째, 현행 교육과정을 진단하여 문제점

을 분석하였다. 둘째, 양보다는 질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유도하였다. 셋째,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탄력성과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교과군과 학년군의 도입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또 하나의 큰 변화는 교과군, 학년제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교과군이란 기존의 교과목들을 교육목적상의 근접성, 학문탐구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실제 생활양식에서의 상호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유목화 하는 개념이다. 학년군은 고등학교 3개 학년을 각각 1개 학년군으로 설정하여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교과군 학년군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1년 동안 2개 학기에 나누어 배우던 것을 한 학기에 집중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 ② 집중 이수제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의 적정화를 위해 학년 혹은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하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집중 이수제’를 통해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동시에 학습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집중 이수제란 여러 학년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을 학년별로 집중 이수하거나, 1년 동안 이수하는 과목을 한 학기동안 집중하여 이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집중 학습이 가능하고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예체능 교과는 집중 이수제 도입으로 블록 타임제(Block-Time)<sup>1)</sup>운영이 가능해 짐으로써 수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연속적인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 ③ 공통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의 재설정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중학교 3학년까지의 9년으로 기간을 단축하여 의무교육기관과 일치시키면서 명칭을 ‘공통교육과정’으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7차 교육과정부터 고등학교 2, 3학년 2년간이었던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명칭 또한 ‘선택교육과정’으로 바뀌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선택교육과정의 적용으로 중학교 과정에서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단계에서 진로와 적성, 필요에 따른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고등학교는 “학교는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④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

창의적 체험활동은 제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재량활동 중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한 교과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활동 중심으로 배려와 나눔의 실천 활동을 주로 한다. 이로써 전인적 성장이 가능한 학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대폭 확대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육과정은 지역, 학교, 학생 집단의 특성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국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틀만을 제시하고,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실질적인 다양화와 특성화를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교과(군)별로 배당된 기준시수를 20% 가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고등학교는 공통 필수 과목을 지정하고 있지 않고, 교과별 필수 이수단위 수만을 지

정함으로써 학생이 필요로 하는 학습을 촉진하고 균형적 교과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가) 2009 개정 교육과정 구성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교과군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또한 이러한 교과군의 도입으로 음악과 미술을 합친 예술 교과가 생겨났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자율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예술교육이 인성과 창의성 계발에 핵심적 교과가 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고등학교 교과군속의 예술교육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에서 예술 교과의 교과 편성 및 배당을 통해 우리나라 예술교과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된다.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과활동에서의 예술교과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1) 보통교과는 다시 기본과목과 일반과목, 심화과목으로 구분한다. 보통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4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예술교과군에는 음악과 미술과목이 포함된다.

2)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고등학교 편제와 이수단위를 보면<표-6>과 같다.

<표-6>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 및 편성

구성	교과영역	교과(군)	필수 이수 단위		학교자율과정
			교과(군)	교과영역	
교과(군)	기초	국어	15(10)	45(3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15(10)		
		영어	15(10)		
	탐구	사회(역사/도덕)	15(10)	35(20)	
		과학	15(10)		
	예술·체육	체육	10(5)	20(10)	
		예술(미술/음악)	10(5)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 외국어/한문/교 양	16(12)	16(12)	
		소계	116(72)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다. 교과군은 학교자율과정을 포함하여 180단위이며 이중 필수 이수단위는 116단위 이상으로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로 나누어 편성되었다. 여기서 1단위는 50분 17회 수업을 의미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기 위한 구상에서 예술 교과는 “음악, 미술을 위시하여 보다 다양한 장르를 다룰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권장함(연극, 영화, 영상, 무대 예술, 문화 콘텐츠 등)”(곽병선 외, 2009:175)로 되어 있다. 즉, 음악과 미술로 나뉘는 개별 교과 차원이 아니라 이 둘이 교차하는 형태의 내용도 포함되어 학생들이 풍부한 예술적 감각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현행 예술교과는 외형상으로는 하나의 교과군 이

지만 음악과 미술이 각 분화되어 서로 교차점 없고 연계되어 지지 않고 있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인 학습부담 경감을 위해 과목수를 줄이려는 의도로 미술과 음악을 묶고 시간수를 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술교과에 대한 인식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의 입시주의로 인한 주지과목 위주의 교육과정에 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군, 집중 이수제 도입과 학교교육정책의 자율을 강조하였지만 여전히 주지교과가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예술교과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개정방향에 대해 이해하여 보았다.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도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의 재설정으로 기존의 2, 3학년의 선택 중심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자신의 흥미와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나) 2009 개정 교육과정 선택과목

선택 교육과정인 고등학교 미술은 일반 과목과 심화과목으로 나뉜다. 각각 포함된 세부과목들을 살펴보면 표와 같다.

<표-7> 선택 교육과정 과목

일반과목	심화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 문화</li> <li>· 미술 창작</li> </ul>	미술 이론, 미술사, 드로잉, 평면 조형, 입체 조형, 디자인·공예, 미술 전공 실기, 영상미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서 선택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표-7>에서와 같이 일반과목을 포함하여 다양한 심화과목을 개설함으로써

써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이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개정 방향이다. 미술을 자신의 진로로 선택한 학생들이 심도 있고 다양한 과목을 접함으로써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업시수가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 2. 스웨덴의 미술교육

스웨덴의 교육행정은 형식상으로는 중앙집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전국의 학교교육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학교교육청(Skolverket)이다. 따라서 스웨덴의 모든 교육기관은 학교교육청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다. 학교의 구체적인 교육계획도 이곳에서 작성되며, 교사의 채용·임명 그리고 봉급에 관한 행정과 국가 보조금, 교육 자료의 공급, 교사 양성 및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정권에 보수연합이 집권함으로써 주요 교육행정 정책 중 하나로 교육제도내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학생들에게 학교 및 교육과정 계열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과 다른 점은 스웨덴의 각 고등학교는 국가가 제시한 교육과정 18개 프로그램 중 학생의 수요와 지역의 여건에 맞춰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각 학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세부과정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sup>18)</sup>

스웨덴은 각 학교마다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기 때문에 스웨덴의 미술교육을 일률적으로 언급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각 학교는 특정학교에 관계없이 국가가 제시하는 기본적인 교육목표를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웨덴의 학교교육청에서 발간한 책 ‘Upper secondary school

---

18) 이규환, 주요국의 교육제도, 2010, pp. 252-257 발췌 요약

2011'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매뉴얼을 바탕으로 개정된 예술프로그램의 목표와 구성 그리고 세부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스웨덴 미술교육과정의 분석에 앞서 스웨덴 예술교육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한 후, 현재 스웨덴의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프로그램의 동향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 1) 스웨덴 미술교육의 역사

스웨덴의 미술은 유럽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도 북유럽이 가지는 특유의 스타일을 가지며 발전해 왔다. 중세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의 벽화와 장식은 스웨덴에서 15세기말과 16세기 초에 크게 유행했던 초상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스웨덴은 16세기와 17세기에 유행했던 바로크 양식과 로코코 양식의 영향을 받아 18세기에 이르러 스웨덴식 신고전주의를 탄생시켰다.

19세기의 예술가들은 노르딕 양식에서 영감을 얻었다. 고전주의 화가들과 낭만주의 화가들은 북유럽 신화와 스웨덴 역사를 그렸다. 20세기의 스웨덴 미술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큐비즘, 초현실주의, 신사실주의 미술사조의 영향을 받았다. 19)당시 유럽 미술계는 아카데미한 미술로부터 벗어나려는 활발한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미술교육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스웨덴에서는 19세기 중반 산업화의 초기 단계부터 미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자적인 미술교육의 모델과 제도를 확립해 왔다.

스웨덴 미술교육의 발전과정은 크게 기술교육적 전통과 조형심리적인 전통 그리고 시각언어적인 전통의 세 시기로 나뉘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미술교육 전통은 시기별로 서로 각기 독립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서로 경쟁하기도 하면서 발전해 왔다.

스웨덴에서 미술교육이 시작된 시기부터 현재에 오기까지의 발전과정을 역사

적 흐름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 (1) 스웨덴 미술교육의 태동<sup>20)</sup>

스웨덴의 교육에서 미술과목은 다른 주요 과목들에 비해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스웨덴에 미술학교가 설립될 무렵 유럽은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스웨덴 역시 산업화의 물결로 인해 오랜 길드의 전통마저 붕괴되고 있었다. 이로서 실질적인 지식을 장인들의 작업장에서 배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에서 받는 미술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당시 스웨덴의 예술가이자 민속학자였던 닐스 몬손 만델그렌(Nils Mansson Mandelgren)은 마침내 1844년 10월에 미술가와 공예가를 위한 일요 미술학교(Söndags-rit-skola för handtverkare)를 설립하였다. 설립 초기 일요 학교는 목공, 인쇄 및 제본, 직조 등 9개의 미술, 공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이는 당시 스웨덴에 다가오는 산업화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닐스 몬손은 스칸디나비아의 수공예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훌륭한 장인정신을 산업에 적용함으로써 스웨덴의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발상은 당시 산업화로 인해 수공예의 자리가 빠른 속도로 사라져 가던 시대에 오늘날까지 스웨덴의 수공예전통을 이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등장한 미술학교는 세계적으로도 그 독창성이 인정되었지만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할 전문적인 교사의 부족으로 인해 학교 미술교육의 발전은 한계를 지닌다.

반면 스톡홀름에 ‘새로운 초등학교(Nya Elementra-Skolan)’라는 또다른 학교가 있었는데 당시 교장은 미술교육에 진보적 커리큘럼을 적용하고자 했다. 1831년에 이 학교의 드로잉 교사로 초빙된 구스타프 켈러(Johan Gustaf Kohler)는 『선 드로잉(Linear-teckning)』라는 책에 기초하여 『새로운 초등학

20) 강현주, 스웨덴의 초·중등학교 미술교사 양성제도, 인하교육개발, 1998, pp.247-260 발췌 요약

교를 위한 미술수업』을 출판하여 수업의 교재로 사용하였다. 이로서 첫 드로잉 수업이 진행되게 된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수업은 선택과목으로서의 성격이었다. 이 수업에서 사용된 교재는 당시 소묘 기초 지식이 부족한 교사들도 가르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드로잉 수업에서는 우선 학생들이 직선을 그리는 연습을 하게하고 차차 사선과 규칙적인 형태를 함께 그려 나가도록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이나 구불구불한 곡선을 이용한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수업을 통해 기하학적인 형태에서 자연의 유기적인 형태까지 폭을 확대해 갈 수 있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삽화를 모방하는 형식이 일반적인 수업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1850년대 중반 당시 학급당 과목수를 줄이기 위한 검토가 있었다. 이에 조사위원회는 드로잉 과목이 미래 생활을 위한 미적인 감각, 사고력, 완성도 등을 키우는데 중요하며 드로잉 연습은 거의 읽고 쓰는 능력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1865년 열렸던 학교교육 세미나에서는 처음으로 드로잉이 독립적인 과목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중등학교에서 자연계열 학생들은 일주일에 4시간씩, 인문계열 학생들은 일주일에 2시간씩 드로잉 수업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무렵 학교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삽화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뤄지고 있었고 일부에서는 이러한 수업 방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는 스위스의 개혁적 교육학자인 요한 하인리히 페스탈로찌(Johann Heinrich Pestalozzi)의 영향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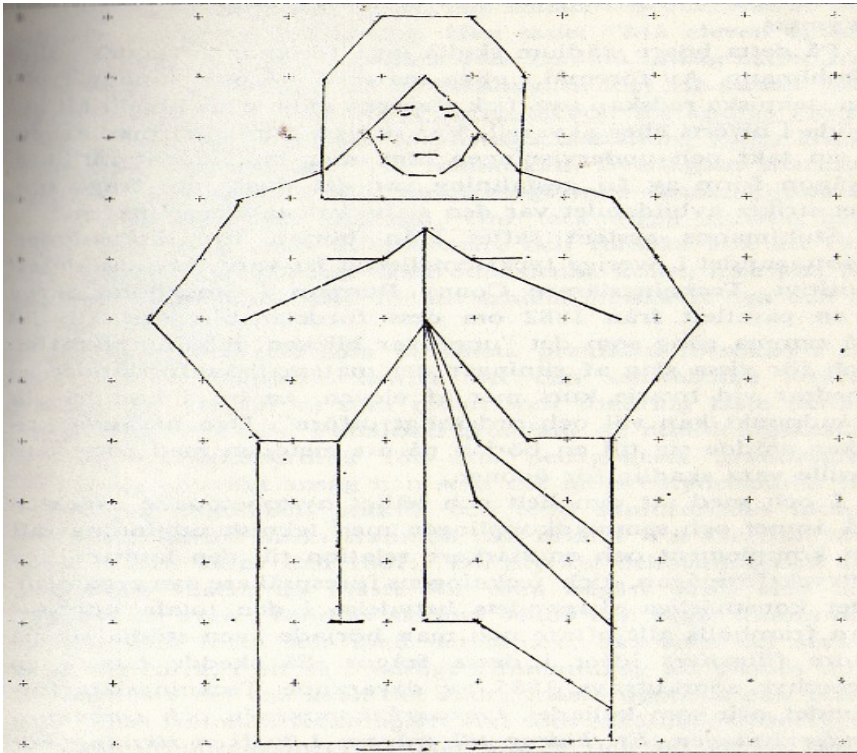
여러 시도들이 진행되던 중 1877년에 「스웨덴의 초등교육에 있어 드로잉 수업을 위한 계획」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기계적인 연습’과 ‘눈이 제대로 관찰하게 하는 조형감각’ 사이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통해 미술 수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스웨덴의 조형심리적인 전통이 기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당시 사회운동가 였던 프레드릭 페르디나드 칼손(Fredrik Ferdinand Carson)은 독일의 유명한 교육학자인 아돌프 스톨만

(Adolf Stuhlmann)의 교육방식을 소개하고 이를 스웨덴에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스톨만식 교육방식은 칠판이나 화면에 점들이 찍혀져 있어 교사의 지도에 따라 점들을 연결시켜 형태를 만들어 내는 식이었다. 이때 모방이 아닌 자연물의 사실묘사나 인체묘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는 교육방식 이었다. 이는 곧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어 1878년 여름부터 스톨만의 교육이론을 바탕으로 단기 교육과정을 시행하게 되었다.

스톨만 교육방법의 도입으로 스웨덴의 미술교육은 기계적 모방의 교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에 제시된 그림은 당시 사용되었던 스톨만 방식의 그림이다.

<그림-1> 스톨만 방식의 그림 예시



## (2) 미술교육의 근대화

19세기 후반 대량생산기술의 발전에 따른 산업사회로의 이행은 유럽전역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으며 많은 사람들이 중세 시대의 수공예 전통에 대한 향수를 갖게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의 전통적 예술에 반발하여 예술을 수립하려는 당시 미술계의 풍조(doopedia두산백과)’를 배경으로 한 아르누보 양식을 통해 표현되기도 했다. 다양한 예술분야들 간의 경계는 점차 붕괴되기 시작했고 일상생활 환경의 많은 부분들이 미술의 영역에 포함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또한 이 근대화 시대에 미술교육과 미적 취향이 인간 교육에 있어서 중심이 된다는 의견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스웨덴 국립미술관이 미술관문을 개방하고 학교 학생들을 받아들여 대중적인 미술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새로운 미술에 대한 이해와 요구에 발맞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럽대륙에서의 미술 흐름의 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미술교육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스톨만식의 점과 사각형, 구에 대한 이해는 영향력이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명암에 기초한 선 드로잉, 원근법, 크로키가 교육되었다.

19세기 후반 스웨덴은 산업화가 진행되었고 당시 미술교육은 이러한 사회 상황에 맞춰 산업현장에서 활용되기 적합한 방향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미술을 이해하고 예술적인 방식으로의 이미지표현을 요구했다.

1930년대에 스웨덴 미술교육에 체계적인 미술 지식을 위한 미술사와 그림양식을 담은 두 개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이는 당시 스웨덴 미술교육이 기술에 집중된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발달심리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접목하려는 시도가 활발하였다.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미술교육에 대해 생각하던 시기이다.

1950년대에 스웨덴 미술교육 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식중심의 미술교육과 경

협중심의 미술교육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1952년에 등장한 새 교육과정에서 미술과목은 위기를 맞게 된다. 전통적 드로잉과 미술지식을 모두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한 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sup>21)</sup>

1960년대 들어 조형심리적인 전통이 근대 미술과 아동발달심리 등에서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다. 반면 1960년대 후반 미술교육에서의 기술교육적 전통이 그 주도권을 잃게 되었다. 조형심리적 방향에서는 예술과 문화의 문제 뿐 아니라 인성교육, 근대적 미술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다. 이 시기 ‘미학적 교육(estetisk fostran)’이라는 개념과 ‘자유로운 창조의 행위(ett fritt skapand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은 곧 아동의 경험과 내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교육으로서 기술교육적 전통에서의 권위적이고 엄격한 훈련으로서의 미술교육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 (3) 교육개혁 시기의 미술교육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웨덴의 교육시스템도 과거 전통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의무교육제도를 바탕으로 초·중학교 9년, 고등학교 3년의 현재와 같은 체제로 탈바꿈 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제도상의 변화는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교육제도뿐만 아니라 미술, 건축, 매스 미디어, 테크놀로지 등 전 사회분야가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미술교육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이미지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사진, 텔레비전, 영화, 광고, 기타 다양한 매체들과 연계된 미술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수업시수나 비중이 줄어들었으나 초등학교 4-6학년에서는 자유창작으로 구성되며 7-9 고학년으로 갈수록 미술사나 기법, 양식 등의 지식과 이미지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시기에 스웨덴의 모든 학생들은 처음으로 모두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교사로부터 미술 수업을 받게 되었다.

---

21) Maria Ambrén, A study of how a textbook meets the goals of the curriculum, 2011,

교육개혁으로 인해 스웨덴의 미술교육은 보다 젊은 세대의 미술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고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시각언어의 관점에서 미술교육을 생각하는 전혀 새로운 전통이 시작되었다.

#### (4) 시각언어적인 전통의 형성

1960년대 후반 이후의 변화들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크리스터 로밀손(Christer Romilson)은 1970년 출판된 그의 저서 『미술, 학교 그리고 사회(Bilden, skolan och samhället)』를 통해 새로운 시각언어적인 교육방향과 교육내용을 제시했다. 이 책은 미술교육의 역사뿐만 아니라 광고, 신문, 그리고 기타 다양한 매체들과 연계된 새로운 미술교육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다음 인용문을 통해 미술교육에 대한 그의 생각을 음미해 보고자 한다.

미술이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향유하는 분야가 아니라 학생들과 일반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자리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림은 일간 신문의 문화면을 장식하는 예술로서만이 아니라 만화와 포스터에서나 집 담벼락이나 거리의 간판, 잡지들, 영화와 텔레비전 등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그림이미지들을 통해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된다. 학생들은 그림들을 평가하고 자극받고 또 관찰한다. 동시에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즐기게 된다. 이러한 일상의 그림들은 과거 전통적인 예술이 기능했던 것과는 다르게 기능하고 작용한다.<sup>22)</sup>

---

22) 재인용, Christer Romilson, *Bilden, skolan och samhället*, 1970



<그림-2> 인간, 광고와 소비, 1970

위의 두 사진은 그의 저서에 실린 당시의 새로운 미술교육방법이 적용된 학생작품들이다. 기존의 전통적 드로잉 수업으로부터 벗어나 당시의 넘쳐나는 광고와 소비문화 속에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다양한 광고사진 자료들을 이용해 콜라주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1968년의 교육개혁 이후 미술교육의 주된 변화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시각(ny bildsyn)이다. 그림에 대한 기존의 시각은 보수적이며 기술교육 중심으로부터 보다 포괄적인 사회 범주내에서의 미술의 이해와 테크닉을 요구한다.

둘째, 새로운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기존의 교육방식은 권위적이었고 학생들은 과제나 수업내용에 비판의식 없이 수동적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이론과 경험 그리고 비판적인 능력도 습득해야 하며 그림 분석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교육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 (5) 1980년대 이후 미술교육

1980년에 접어들어 미술교육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미술과목이 드로잉(tekningssamnet)서 미술(bild)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미술대학의 전공 분야에서 선택 전공 중 디자인 분야가 포함되었다. 이는 당시 획기적인 일로서 그 근간에는 시각 언어로서의 미술교육에 대한 접근이 바탕이 되었다. 시각언어적 접근은 작품 분석, 사회적 맥락 검토, 비판적 사고, 창조적 작업 능력, 창의력 강조 등으로 특징지어졌다. 그리고 미술교육의 이러한 변화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도래와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과정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 2) 스웨덴 미술교육과정

스웨덴의 현행 교육과정 문서인 'Upper secondary school 2011'에 따르면, 고등학교에는 총 18개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는 다시 12개의 직업 프로그램과 6개의 대학진학 준비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예술프로그램은 대학진학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술,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의 대학교육을 위한 지식과 소양을 겸비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그리고 직업생활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이차적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갖게 된 배경은 스웨덴 고등학교가 인문계, 상업계, 공업계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격차가 있는 학교들을 모두 통합한 형태의 통합고등학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이 단지 직업이나 대학 진학을 위한 지식과 기술습득만을 위한 목표보다 더 폭넓은 뜻을 가진다. 즉, 모든 교육과정은 개인의 발전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예술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학생 자아의 발전과 적극적인 사

회참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다음은 예술프로그램의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에게 예술, 문화, 소통의 관점을 기반으로 역사와 세계, 현대인 그리고 미적 표현 양식에 관한 지식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예술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창조적인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개별수업과 그룹 활동을 통해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사상에 대해 서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예술교육은 학생들에 미적문화연구, 역사, 언어, 기술과 통신 등 다른 미적영역과 지식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예술교육은 예술제작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기술과 분석하는 능력의 개발을 위해 종합적인 훈련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학생들이 문화적 행동이나 대중과의 의사소통에서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및 윤리적 문제를 인식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훗날 기업정신과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섯째, 예술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예술과 문화를 창조하고 경험하며 해석하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과 다른 학생의 작업에 대하여 토론함으로써 의사소통과 이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마지막으로, 창의성, 호기심, 의사소통, 상호작용 그리고 스스로 창조하고 수행하는 능력이 예술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작업에 책임감을 갖고 미디어 정보화 사회에서 많은 양의 정보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 문제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검토하는 것, 디지털 도구와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과 자신의 시야를 확장시키고 전문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대학교육의 예술·과학분야 연구를 위한 준비로서의 예술교육이 되어야 한다.

### (1) 스웨덴 미술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

스웨덴의 교육과정은 필수기초과목, 과정필수과목, 과정세부선택과목, 과정심화선택과목, 개별선택과목, 졸업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과정에 상관없이 모든 고등학생이 이수해야하는 필수기초과목은 영어, 역사, 체육, 수학, 과학, 종교, 사회, 스웨덴어, 제 2 외국어 총 9개 과목이 포함된다. 이러한 필수기초과목은 총 115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예술 프로그램에서 졸업 프로젝트 100학점을 포함하여 예술 관련 과목에서 1350학점을 이수하여 3년 동안 총 2,50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스웨덴 예술교육과정의 구조와 이수 체제를 <표-8>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8> 스웨덴 예술프로그램의 과목편성 및 이수 체제

구성 체제	세부과목				
필수 기초과목 (1150)	스웨덴어1(100),제 2언어로서의 스웨덴어1(100) 스웨덴어2(100),제 2언어로서의 스웨덴어2(100) 스웨덴어3(100),제 2언어로서의 스웨덴어3(100) 영어(100), 역사(100), 체육(100), 역사2b-문화(100), 수학(100), 과학(100), 사회(100), 종교(50)				
과정 필수과목 (150)	미적 커뮤니케이션(100), 예술과 문화(50)				
과정세부 선택과목 (400)	미술과디자인 (400)	무용(400)	미학과미디어 (400)	음악(400)	연극(400)
	그림(100) 미술과 디자인(100) 형태(100) 사진이론(100)	무용공연(100) 무용실기(100) 무용실기(100) 무용이론(100)	디지털 창작(100) 디지털제작1(100) ) 디지털제작2(100) ) 미디어,사회와소	성가대와양상블(200) 악기or성악 (100) 음악이론 (100)	무대공연1(100) 무대공연2(100) 무대공연3(100) 연극이론(100)

			통(100)		
과정심화 선택과목 (500)	애니메이션, 그림, 사진이론, 서커스, 무용, 무용오리엔테이션, 무용기술, 무용이론, 디자인, 디지털 창작, 영어, 기업가정신, 미적 커뮤니케이션, 영화 및 TV제작, 철학, 사진이미지, 비즈니스, 그래픽, 역사, 예술과 문화, 오디오제작, 수학, 미디어 통신, 미디어사회와 커뮤니케이션, 현대 언어, 심리학, 국민윤리, 연극, 웹 기술, 시각 커뮤니케이션 등 (과목당 100학점)				
졸업 작품 (100)	선택한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졸업 프로젝트.				
개별 선택 (200)	세부과목을 포함하여 전 영역에서 교육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과목을 선택하거나 개설할 수 있음.				
총 이수 학점	2,500				

출처: Skolverket, 'Upper secondary school 2011' p. 211 변형

위의 6가지 구성 체계를 바탕으로 필수 기초과목에서 과정심화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주요 과목들의 목표와 내용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① 필수기초과목(The upper secondary foundation subject)

각 프로그램마다 학생들은 9과목을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때의 이수학점 범위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다. 예술프로그램은 1150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초과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직업적인 지식개발 뿐만 아니라 더 심도 있는 연구, 사회생활에 적극적인 참여와 자아개발을 위한 것이다.

기초과목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예술프로그램의 모든 과목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학생의 지식개발을 위한 역할을 한다. 기초과목은 일반적인 교육과정의 목표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예술프로그램을 졸업하기 위해 일정 수업량 이상을 이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균형 잡힌 지식을 겸비하도록 한다. 또한 이리

한 기초과목의 지식이 예술과정에 스며들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예술프로그램의 기초과목 중 중요하게 다뤄지는 역사와 수학의 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역사 과목은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게 200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예술프로그램의 졸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예술, 문화 상호작용관점에서 역사적으로 표현된 지식을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역할이 주어진다.

역사2b-문화 과정은 문화·역사적 관점에서 더 깊이 있는 주제연구를 할 수 있다. 예술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역사과목에서는 미술과 미적표현 그리고 역사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지식을 강조한다.

둘째, 수학 과목은 미학적 특성의 더 많은 범위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학1b라는 과목이 있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통계, 미학의 수학적 측면, 사회과학 및 경제문제에 대하여 수학적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 ② 과정 필수 과목(Subject specific to the programme)

예술프로그램을 선택한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수해야 하는 두 개의 공통 전공 과목이 있다. 하나는 미적 커뮤니케이션(aesthetic communication)이고 다른 하나는 미술과 문화이다. 두 과목을 포함하여 150학점만을 이수 하면 되는데 이는 전공심화과목(programme specialization)에서 더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이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학생들이 선택한 예술 영역에서 고등교육을 위한 준비나 고등교육연구 준비를 위한 전문가능성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미적 커뮤니케이션과 미술과 문화 두 과목의 목표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가) 미적 커뮤니케이션

이 과목에서는 학생들의 미적 표현과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된 교육 내용으로는 첫째, 미적 표현과 감정이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다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둘째, 미적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문화 측면에 대한 지식을 배우며 셋째, 미적 표현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전통 미디어의 사용기술을 익힌다. 넷째, 관련 분야의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지식을 고려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운다. 또한 이 과목은 예술프로그램의 5가지 영역을 하나로 연결하고 결합하는 역할을 한다.

나) 예술과 문화

예술과 문화는 학생들에게 예술과 다른 문화표현 양식들을 분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술을 포함하여 건축, 역사, 음악, 연극, 과학에 이르는 영역에서 역사적 미학을 기반으로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다룬다. 또한 예술이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예술에 어떻게 사회 문제를 반영하는지와 사회변동에서 예술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룬다.

위의 두 과목에서 각각 다루는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9> 예술과정 필수과목의 핵심내용 정리

미적 커뮤니케이션(100)	예술과 문화(50)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 미적표현 기법과 방법.</li> <li>2. 미적 표현의 창조적 가능성과 의사소통에 대해 탐구.</li> <li>3. 그룹을 원동력으로 창의적인 작업.</li> <li>4. 완성품에 대한 발표.</li> <li>5. 관객과 시청자와의 만남.</li> <li>6. 다양한 예술형식의 작품제작을 위해 적극적인 협동.</li> <li>7. 개념에서 디자인 완료까지 기본적 제품 생산 공정이해.</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대의 문화표현과 학생들과의 연결점의 소개.</li> <li>2. 서로 다른 문화개념의 의미 그리고 예술과 대중문화의 설립형태의 관계.</li> <li>3. 현재와 역사적 회상을 통해 사회 변화와 미적 표현사이를 연결.</li> <li>4. 저작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와 검열 또한 예술적 표현의 기술적 가능성에 관한</li> </ol>

<p>8. 예술품에 대한 저작권, 노동과 작업에 관한 법률 및 규정.</p> <p>9. 레디메이드와 산업주의 또는 낙서문화와 거리 복원 미적표현과 사그흐름의 연결.</p>	<p>현대사회에서 예술의 조건과 역할.</p> <p>5. 학생의 독창성과 현대의 예술적 표현과의 관련성.</p> <p>6. 현재 문화와 예술행사의 분석 및 해석. 현 문화적 쟁점에 대한 개념과 이론.</p>
---	---

### ③ 과정 세부선택과목(Orientation)

예술 프로그램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예술프로그램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미술과 디자인, 무용, 미학과 미디어, 음악, 연극 중 자신이 원하는 영역을 선택 하게 된다. 이로써 한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 과정의 특징은 모든 영역에서 서로 다른 미적표현의 이론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미술과 디자인, 무용, 음악, 연극, 미학과 미디어는 각 영역을 과목으로 하는 이론과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이론적 이해는 연구를 위한 준비와 자신의 미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론과목을 배움과 동시에 실기과목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기가 조화롭게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서는 미술 분야와 관련된 미술과 디자인, 미학과 미디어 두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 가) 미술과 디자인

미술과 디자인영역은 다시 미술과 미술이론으로 나뉘고 미술과 미술이론 과목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한다. 미술과 디자인영역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다양한 재료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작품을 만들고, 2차원과 3차원의 이미지를 제작하는 기술에 대해 다룬다.

둘째, 시각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며, 시각적 표현을 여러 가지

관점에 비추어 해석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의 능력을 계발하도록 한다.

셋째, 예술분야에 대해 넓은 지식과 빠르게 변화하는 시각문화 속에서 이를 응용하고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시각적 언어로서의 사진과 예술적 과정에 대해 다룬다.

다섯째, 미술이론 과목에서는 디지털과 미술의 영역에 대한 이론을 다루며, 사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과 제작과 사용법에 대한 이론들도 포함한다.

#### 나) 미학과 미디어

미학과 미디어영역은 크게 디지털 창작, 미디어 제작 그리고 미디어, 사회와 커뮤니케이션의 세 과목으로 나뉜다. 각 과목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창작 과목에서는 미적·예술적 표현의 창작과정을 공부하고 훈련한다. 미디어 제작 과목에서는 미디어 영역에서 제품 생산과 배포를 위한 도구에 대해 다룬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사회와 커뮤니케이션 과목에서는 다른 영역의 이론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의 성격은 여러 분야와 관련되어 있으며 미적 표현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미디어를 포함한다. 미학과 미디어영역의 특징과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학적 관점에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둘째, 학생들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여 디지털 표현을 해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제품을 창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이 영역은 사운드, 이미지와 이야기를 중심으로 디지털 미디어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의 두 영역에 대한 핵심내용을 <표-10>로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0>과정세부선택과목에서 두 영역의 핵심내용.

과정세부선택과목 400			
미술과 디자인(400)		미학과 미디어(400)	
미술	사진(100) 1. 다양한 시각적 묘사 유형에 대한 분석과 대화. 2. 다양한 관점에서의 사진 개념. 3. 서로의 작업에 대하여 토론 4. 그룹 활동을 통한 의사소통기술. 5. 전통기술과 새로운 기술습득.	디지털 창작 (100)	1.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창조적 스케치 2. 예술과 기술의 창조적 만남과 경계 3. 창작과 발표를 위한 디지털 도구선택방법. 4. 디지털 제작의 의미. 5. 다양한 미적표현의 창작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사용법.
	미술과 디자인(100) 1. 감정과 다양한 장르를 표현하는 이미지와 이미지요소. 2.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사진표현법. 3. 이미지 설계와 작업의 예술적 과정. 4. 3차원영상 기술과 미디어 표현기법. 5. 완성작품의 발표와 전시.	미디어 제작 (200)	1. 미디어 제작 및 개요, 생산준비작업. 2. 미디어 제작의 역할, 협력의 중요성. 3. 다양한 관객의 분석을 위한 기준 4. 내용, 형태, 기능에 기초한 미디어 제작의 기본적 분석 기준. 1. 상황에 맞는 미디어 제작 준비계획. 2. 텍스트 작성, 촬영, 녹음 및 편집. 3. 이론, 개념 및 생산 공정 처리 기준. 4. 다양한 그룹에 대한 심층분석 기준.
	형태(100) 1. 다른 유형의 2, 3차원 형태 분석. 2. 서로의 작업에 대한 토론 및 평가. 3. 조각, 디자인과정, 형태문제 해결. 4. 전통 및 새로운 재료와 방법으로 입체형태 생산. 5. 마케팅 측면의 발표와 전시, 평가.	미디어 사회와 대화 (100)	1. 민주주의의 영향과 현대사회에서 미디어의 역할. 2. 국내 및 국제 미디어 구조와 지속적인 변화 분석. 3. 전통과 새로운 미디어 양식 모두를 통한 기본 통신 대중문화. 4. 통신 분야의 법률 및 규정.
사진 이론 (100)	1. 통신절차 및 시각전달 이론 2. 미술이론과 미술사. 3. 시각문화와 인식이론, 색 이론. 4. 아트와 대중미술 이미지의 분석. 5. 다양한 측면의 그림.		

④ 전공심화과정(Programme specialisation)

전공심화과정은 졸업 목표와 예술프로그램의 성격을 기본 틀로 하는 과목들을 포함하며 이 과정에 제공되는 과목들은 학교교육청에서 결정한다. 전공심화 과정은 500학점을 이수할 하여 대학에서 예술, 사회과학, 인문학과정 공부를 지속하기 위해 가능한 깊이 있는 공부가 되도록 한다. 전공심화과정은 학생들이 미학과목의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사회 과학과 인문학과목에서 고등교

육을 준비하든지 이들 영역에서 그들의 지식을 깊게 한다.

전공심화과정의 주된 목적은 다양한 영역의 과목선택을 통해 학생들에게 하나 이상의 예술영역으로 넓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뮤지컬에서 그들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연극과 음악을 통합하는 교육을 통한 지식의 확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장르의 통합과 붕괴를 통한 입체적인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스웨덴 학교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예술 심화과정의 코스들은 예술프로그램의 전 영역을 포함하는 약 42개 과목들과 각 과목들의 분화된 과목들 중에서 500 학점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요구하면 지방자치에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의 <표-10>의 각 과목들을 살펴보면 과목 중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관련 과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인상적이다. 디지털 미디어시대를 반영한 스웨덴 실용성에 바탕을 둔 교육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과목들 중 기업가 정신, 웹 기술, 영화 및 TV제작 등을 포함하여 졸업 후 직업생활에 직접적인 도움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수많은 과정심화과목들 중 미술영역에서 다루지 않은 애니메이션, 사진이미지, 인터페이스 디자인, 시각 커뮤니케이션, 웹 기술의 5개 과목을 중심으로 과목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교육은 학생들에게 신기술과 함께 애니메이션의 계획, 실행, 출판에 대한 지식 개발을 목표로 함. 캐릭터 제작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과 청중과 상황에 알맞은 표현 선택을 하며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배움.

나) 사진 이미지: 사진 이미지와 함께 의사소통하는 기술과 사진의 이미지화에 대한 지식 개발을 목표로 함. 학생들은 아이디어, 구성, 카메라, 색상관리기

술, 이미지를 인쇄하는 기술, 사진의 역사적 발전 지식, 사진 분야의 환경과 안전 등을 배움.

다) 인터페이스 디자인: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의 이면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학생들은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요소, 입출력의 다양한 방법, 분야의 전문용어, 디자이너 인터페이스 원리 및 언어 형식 등을 배움.

라) 시각 커뮤니케이션: 현대의 시각 커뮤니케이션과 역사를 통해 성역할, 사회, 종교, 정치, 문화가 어떻게 시각적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지식 개발이 목표임. 학생들은 이미지를 해석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준과 개념을 배움.

마) 웹 기술: 웹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 개발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웹 기술자의 디자이너와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응용프로그램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지식 등을 배움.

#### ⑤ 졸업 작품(Diploma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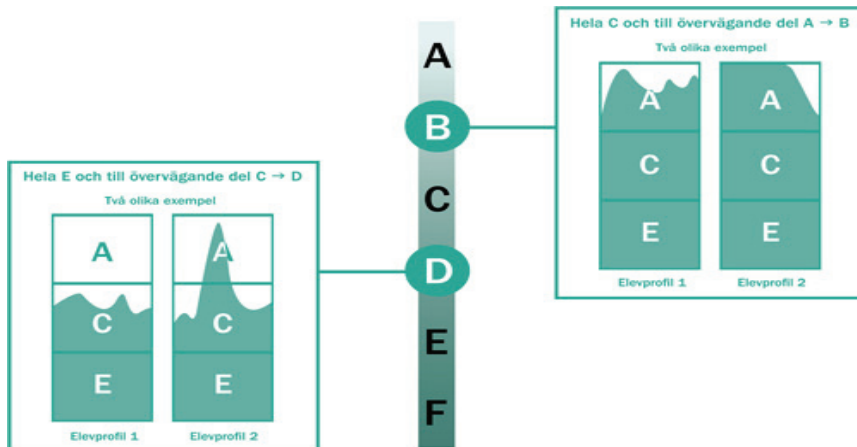
예술프로그램의 학생들은 졸업 프로젝트를 통해 프로그램의 핵심 지식영역을 기초로 예술,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의 고등교육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더 광범위한 학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며 평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질을 갖게 된다. 이 졸업 작품은 고등교육의 보고서 양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쓰도록 하고 있지만 꼭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 작품 보고서는 영어로 쓰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작업이 예술 분야에서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을 제시하고 토론하며 다른 학생들의 졸업 작품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해야 한다.

#### (2) 스웨덴 미술교육과정 평가 방식

스웨덴 고등학교 미술교육과정의 평가는 그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각 과목별 지식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졸업 작품에 대한 평가이다. 스웨덴 고등학교의 지식 평가제도는 A-F 의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들은 스웨덴 학교교육청에서 제시한 각 과목별 목표와 필수 지식 요건을 얼마나 잘 달성 했는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이때 A-D의 패스등급 중 최고점 A와 중간 C, 미흡E 등급에 대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그 평가 기준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B와 D등급에서는 국가 수준의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제시한 등급기준 사이에 해당하는 학생의 지식 평가에 대해서는 교사의 총체적 판단에 따라 평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힌 평가를 받고 현재 자신의 학습 진행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스웨덴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B와 D 등급에 포함되는 학생의 등급 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분화된 등급을 통해 학생들은 공정한 평가를 받게 된다. 예를 들면 C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E의 요구조건은 모두 만족 하는 학생이나 C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A 수준의 능력을 갖춘 학생에게 D등급을 부여받도록 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A등급에 대하여 C등급의 성취수준을 모두 만족하지만 A등급을 받기에는 부분적으로 보충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B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림-3> 스웨덴 평가등급 B와 D의 범주



다음은 예술프로그램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국가가 제시하는 평가 기준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표-11>와 같다.

<표-11> ‘사진이론’ 과목의 지식 평가 기준

E	C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소통 과정의 <b>개요</b>와 기본이론 설명</li> <li>-미술이론과 색 이론의 <b>개요</b>를 설명</li> <li>-<b>간단한</b> 이미지 분석 및 이미지 해석</li> <li>-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사진의 중요성을 <b>간단히</b> 설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소통 과정과 기본이론을 <b>자세히</b> 설명</li> <li>-미술이론과 미술의 역사를 <b>자세히</b> 설명</li> <li>-이미지분석과 해석은 물론 다른 모델사이의 <b>차이점과 유사점</b>을 설명</li> <li>-개인과 문화, 사회에 <b>영향</b>을 미치는 이미지의 중요성을 <b>자세하게</b> 설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소통 과정과 기본이론의 <b>미묘한 차이</b>를 <b>자세히</b> 설명</li> <li>-미술이론과 미술의 역사에 대해 <b>자세하고 함축적으로</b> 설명</li> <li>-<b>복잡한</b> 이미지분석과 해석을 물론 <b>다양한</b> 모델의 차이점과 유사점의 <b>미묘한 차이</b>를 <b>자세히</b> 설명.</li> <li>-개인과 문화,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진의 중요성을 <b>자세하고 함축적으로</b> 설명</li> </ul>

\*등급 D: 학생의 필수 지식이 E단계이고 주로 C단계를 충족시킬 경우.

\*등급 B: C단계의 기량에 주로 A단계를 만족시키는 경우.

학생들의 문서작업이나 표현방법에 따라 E등급에서 A등급으로 갈수록 점점 함축적이고 자세한 기준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술프로그램의 필수과목과 모든 선택과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즉 각 세부 과목마다 과목의 목표와 성취기준에 따른 지식내용은 달라지지만 위에 제시된 <표-11>의 강조된 부분처럼 국가가 제시하는 평가 기준이 서술되어있다. 나아가 스웨덴의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한편, 예술 프로그램의 졸업 작품에 대한 평가는 2단계인 E와 F로 이루어져 있다. 졸업 작품은 대학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평가이다. 하지만 예술이나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를 위한 준비 개념으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자신이 직접 계획하고 수행하여 완성에 이르기까지 자기 주도적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운 지식과 경험을 총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지식의 폭넓은 견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세 가지 평가 기준인 ‘사실과 이해, 기술, 평가능력 및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졸업 작품을 통해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 ① 사실과 이해

- 특정 아이디어나 의문을 시작점으로 하여 자신의 선택영역에 관련된 지식.
- 선택한 지식 영역의 용어, 이론, 기술과 방법에 대한 지식.
- 다른 지식 영역과 미학·미술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 ② 기술

- 선택한 매체를 이용해 자신을 표현하는 기술.
- 예술, 인문 및 사회과학 방법을 사용하는 기술.
-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검색하고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과 기술을 적절히 사용하는 기술
- 졸업 작품의 기본적인 형식에 맞추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기술.
- 졸업 작품을 요약하여 상황과 대상에 맞게 요약하고 발표하는 기술.

#### ③ 평가능력 및 접근방식

- 작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상황과 요구조건에 대한 방법을 계획하고 채택하는 전략과 책임감을 가지는 능력.
- 미적표현과 선택한 소스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일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
- 객관적인 반응을 제공하고 고려하며 평가하는 능력.

## IV. 한국과 스웨덴의 미술교육과정 비교분석

이제까지 한국과 스웨덴의 고등학교 미술교육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은 양국의 미술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1. 비교 분석 내용

한국과 스웨덴의 미술교육과정을 비교하기에 앞서 양국의 교육제도에 영향을 미친 이데올로기의 차이점을 교육 평등화의 시각에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우선, 스웨덴의 현재 고등학교제도는 진보주의 이데올로기를 지향하여 교육의 평등화를 실현하였다. 즉, 스웨덴에서는 교육의 평등화를 완성하기 위해 학교제도의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 내용면에서도 민주화를 강조하는 진보주의를 지향하였다. 그 노력의 결과 1971년에 김나지스콜라(Gymnasieskola)라 불리는 스웨덴의 민주적 고등학교제도가 완성되었다. 이는 종전의 일반고등학교와 기술학교 그리고 직업학교를 하나로 통합한 것을 말한다. 즉, 김나지스콜라는 스웨덴의 유일한 고등학교 형태이며 이는 진보주의의 이상적 학제인 단선형 학제일 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교육 평등화를 실현하였다는 점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고등학교가 통합됨에 따라 스웨덴의 고등학교는 종전의 6개 분야 27개 교육과정 계열에서 현재 18개의 교육과정으로 축소 정비되기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였다. 이는 크게 취업을 지향하는 12계열과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6계열로 나뉘며 9년제 의무학교를 수료한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적성·진로를 고려하여 자신이 전공할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스웨덴은 최근 10년 정도 정권이 변하여 진보주의 성향에서 신자유주의로의 변화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민주적 교육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되

고 있다.

반면, 한국의 학제는 미국의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서는 자본의 지배와 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의 평등화에는 관심이 없다. 심지어 교육의 시장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한국의 고등학교제도는 미국에서와 같이 단선형 학제이지만 실제적 운영 면에 있어서는 비민주적인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상급학교 입시 위주의 교육, 사교육비의 증대, 사립학교의 과다, 학교의 서열화 등의 민주화에 부정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고등학교제도는 형식적인 면에서도 점점 복선화 되어가고 있다.<sup>23)</sup> 인문계 고교, 실업계 고교, 특수 목적 고교, 특히 현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추진으로 자율형 사립고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 복선적 성격이 더 강해져 갈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스웨덴의 각기 다른 이데올로기가 미친 고등학교제도의 큰 틀을 바탕으로 양국의 미술교육과정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 1) 교육목표

우리나라도 제7차 교육과정부터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2, 3학년에서 이루어지는 미술 수업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대학 진학을 목표로 선택하도록 개정 되었다. 이 점은 스웨덴 고등학교의 예술 프로그램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같으나 스웨덴에서는 이 목표를 문서상에 분명히 제시하여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양국의 문서 제시의 틀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보았던 스웨덴 고등학교 제도상의 차이점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스웨덴 고등학교의 미술과 교육목표에서 공통적으로 창의성 계발, 창조적인 의사소통 능력, 전인교육을 중점을 두면서 그 내용

---

23) 이규환, 전개서, pp. 75-84

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선택과목에 예술 교과군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예·체능과목군에서 체육과 예술이 분리되었다. 양국에서 체육이 필수과목인 점은 같으나 한국의 예술교과군에는 음악과 미술 두 과목인 반면 스웨덴의 예술 프로그램은 미술과 디자인, 미학과 미디어, 무용, 음악, 연극 5과목으로 선택 범위의 차이점이 보인다.

한국의 미술과 교육과정의 총괄 목표는 ‘미적 감수성’, ‘창의적 표현능력’, ‘비평 능력’, ‘미술 문화의 향수 능력과 태도’로 함축할 수 있다. 미술교과 교육은 미적 감수성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시각적 조형물이 가진 아름다움을 느끼며 심미적 태도와 표현력, 창의성, 비판적 사고를 길러 준다. 따라서 미술의 다양한 체험, 표현, 감상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나타내며 미술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고 터득함으로써 미술 표현의 기본 원리를 알고, 이를 자신만의 이미지로 시각화하는 것에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도록 한다. 표현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중요한 과정과 방법이라고 보고 표현에서 소통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감상에서는 다양한 미술 작품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동시대의 미술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스웨덴에서는 고등학교가 통합되고 계열에 따른 교육과정이 정비 축소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교육과정 개정을 거쳤다. 그리고 이런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틀은 1992년 중앙의 교육부가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대학진학 또는 취업에 유용하도록 설정한 것이며, 진학을 위한 기초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에 유용한 직업 프로그램이 하나의 학교에 공존하고 있다. 또한 어느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학생들이 희망하면 대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18개의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폭넓은 보통교육을 실현하고 대학이나 고등학교 이후의 단계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제공한다.

이러한 스웨덴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Lpf94) 문서(Curriculum for the non-compulsory school system)의 기본적인 가치의 첫 부분에서 민주주의는 국가 교육제도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법(1985:1100)에는 “모든 학교에서의 모든 교육활동은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개개인의 내적인 가치는 물론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환경도 존중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 가치와 함께 학교 교육청에서는 국가 18개 프로그램이 각각 추구해야 할 목표와 학교에서의 작업 방향을 제시하며, 이때 달성할 목표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날 때 지녀야 할 최소 수준을 명시하고 있다.

스웨덴의 예술프로그램 문서에 제시된 목표는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준비시키면서 관련된 직업세계에서의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제시한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예술 프로그램을 선택한 학생들은 일차적으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면서 이차적으로 직업생활을 위한 준비를 위한 목표도 함께 갖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가 제공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관점을 기반으로 미적표현 양식에 대한 지식을 개발하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작업하며 다양한 표현 방식에 대해 서로 의사소통 하는 능력을 개발한다.

둘째, 다양한 미적 영역과 지식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예술 제작에 종합적 분석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학생들에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필요하게 될 법적 및 윤리적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정신과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학생들에게 예술과 문화를 창조하고 경험하며 서로 토론하고 상호작용하며 의사소통과 이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여긴다.

따라서 스웨덴의 고등학교 예술프로그램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창의성 계발, 인격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시야를 확장시켜 전문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 2) 예술 교과군

한국과 스웨덴의 고등학교 예술 교과군에 포함된 과목 구성은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 한국과 스웨덴 예술교과군의 과목 분야 비교

한국	스웨덴
음악, 미술	미술과 디자인, 무용, 미술과 미학, 음악, 연극

한국은 현재 2007 개정 교육과정 미술과의 2, 3학년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예체능 과목군에서 예술 교과군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음악과 미술이 각각 존재하고 있다(박창현, 2011). 2014년 기준으로 시행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현행 10개의 교과목을 8개로 줄이면서 본격적으로 예술 교과군이 도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예술교과군은 여전히 도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술 교과군이 추구하는 계열간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은 그 운영 면에서 음악과 미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필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 교과군으로의 설정은 더욱 무의미하다(이경원 외, 2011).

반면, 스웨덴 고등학교제도는 9년제 의무학교를 수료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및 진로를 고려하여 학교의 특정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술 프로그램에 지원한 학생들은 학교에 따라서는 위에 제시된 미술과 디자인, 무용,

미술과 미학, 음악, 연극의 5개 예술 과목 중에서 더욱 세부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입학할 때 선택한 분야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흥미와 적성 및 진로의 변경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된다. 물론 양국 고등학교 미술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 및 적성을 고려하여 그 분야를 선택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스웨덴 예술 교과군은 과목 구성수와 그 운영 면에서 한국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첫째, 미술,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분야는 더 깊은 지식을 위한 이론과 실기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스웨덴에는 예술필수과목인 ‘미적 커뮤니케이션’과 ‘예술과 문화’를 예술교과군의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도록 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예술 교과군에 포함된 각 과목들은 독립된 영역 이면서 동시에 예술 분야 간에 통합적 상호작용을 이루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주지과목위주의 교과구성에서 예술 교과군이 차지하는 범위는 지극히 부분적이다. 그에 비해 스웨덴의 예술 교과군은 이미 예술프로그램이라는 범주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부분이 아닌 중심에 놓이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 3) 선택과목

다음에 제시된 표를 통해 알 수 있듯 한국과 스웨덴은 선택과목의 과목수와 커리큘럼의 다양성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한국의 현행 교육과정의 미술과 선택과목은 위에서 살펴본 예술 교과군에 포함되며 ‘미술과 삶’, ‘미술 감상’, ‘미술 창작’세 과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 7차 교육과정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미술과 생활’한 과목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에서 두 개의 과목이 늘어난 것이다. 더불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서 선택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또한 선택과목의 수

도 늘어나 다음 표와 같이 일반 과목과 심화 과목을 합하여 10개 과목이 신설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한 이래 두 차례 개정을 거쳐 선택의 폭을 넓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한국의 선택과목

2007 개정 교육과정(현행)	미술과 삶, 미술 감상, 미술 창작	
2009 개정 교육과정(예정)	일반 과목	심화 과목
	미술 문화 미술 창작	미술 이론, 미술사, 드로잉, 평면 조형, 입체 조형, 디자인·공예, 미술 전공 실기, 영상미술

<표-14 > 스웨덴의 선택과목

과정심화 선택과목	애니메이션, 그림, 사진이론, 서커스, 무용, 무용오리엔테이션, 무용기술, 무용이론, 디자인, 디지털 창작, 영어, 기업가정신, 미적 커뮤니케이션, 영화 및 TV제작, 철학, 사진이미지, 비즈니스, 그래픽, 역사, 예술과 문화, 오디오제작, 수학, 미디어 통신, 미디어사회와 커뮤니케이션, 현대 언어, 심리학, 국민윤리, 연극, 웹 기술, 시각 커뮤니케이션
--------------	---

반면, 스웨덴의 선택과목은 예술 교과군에 5개 분야 뿐만 아니라 수학, 역사, 영어 등 기초과목도 포함한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의 과목선택을 통해 학생들에게 하나 이상의 예술영역으로 넓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미술뿐만 아니라 예술 전 영역에서 장르가 사라져 가는 이 시대에 선택교육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위에 제시된 대부분의 과목들은 각 과목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난이도에 따라 세분화 된다. 예를 들면, ‘미디어 통신’과목을 선

택한 학생은 미디어 통신과 연계된 ‘저널리즘 광고 및 정보1’과 ‘저널리즘 광고 및 정보2’, ‘텍스트 통신’을 통해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유도한다. 스웨덴의 선택과목은 이 세분화된 과목들까지도 선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개별 선택(Individual option)과목이 있는데 여기서 학생은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자신의 개성과 흥미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시수

<표-15 > 한국과 스웨덴 시수 비교

한국			스웨덴	
1학년	2학년	3학년	필수기초과목	1150credits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		예술관련과목	1350credits
필수과목 주 1시간	음악, 미술 중 택1 주 2시간 혹은 3시간		총이수학점	2500credits

한국은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주5일제 수업에 시수의 변화가 있었다.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인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34주를 기준으로 최소 연간 수업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씩 34시간이며, 교과 집중 이수제를 시행하는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2시간씩 한 학기에 몰아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인 2, 3학년 학생들은 대학 진학이나 적성을 고려하여 음악이나 미술과목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 3개의 선택과목 중 ‘미술과 삶’, ‘미술 감상’은 각각 4단위로 2년 동안 총 68시간을 최소 이수 단위로 하며 ‘미술 창작’ 과목은 6단위로 102시간을 이수하도록 문서화 되어 있다. 그러나 보통 2학년에서 일주일

에 2시간씩 집중 이수를 하고 3학년에서는 입시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에서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우는 미술수업은 선택과목에 따라 136시간 혹은 170시간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국의 고등학교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해 주지과목을 중심으로 수업시수가 편성 된다. 게다가 예술교과목과 같이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중 이수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물론 집중이수제의 장점도 있지만 특히 미술, 음악과 같이 지속적인 예술적 감수성과 체득된 습관 및 다양한 기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한 학기 또는 학년에 몰아서 교육한다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지 의문이 든다. 7차 교육과정 이래 등장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적성, 관심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부족한 수업 시수 미확보로 현재 미술교과의 필수학습요소를 모두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편, 스웨덴 고등학교는 3년간 2500credits으로 운영되며 여기서의 1credit은 한국 교육과정의 1시간과 유사한 개념이다.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비롯한 예술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60분 수업을 기준으로 최소 2180시간을 공부할 권리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2500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3년이 걸리지만 학생에 따라서 더 오래 또는 더 적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일정량의 기초과목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고등학교 예술교육과정은 3년간 총 이수 학점의 절반 이상이 예술과 관련된 과목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스웨덴 예술 교육과정은 필수기초과목을 1150학점을 기본교과로 이수하고, 예술 관련 과목들로 구성된 1350학점을 이수하여 총 2500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자격 인증(School leaving certification)이 주어진다. 안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하여 구성하게 된다.

즉, 스웨덴 고등학교의 미술교육과정은 학생의 선택권에 따라 고등학교 3년 동안 예술에 초점이 맞추어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3년간 미술수업시수와 전체 교과에서 차지하는 예술의 비중과 비교하였을 때 그 차이는 상당하다. 우리나라 역시 7차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이 생겨나 학생들의 진로, 적성, 관심을 반영하고자 과목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수업시수에 자율성을 늘리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고등학교의 미술교육과정은 주지교과를 강조하여 미술을 포함한 음악과 체육 등의 비주지 교과는 소홀히 다루짐으로 인해 충분한 수업시수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스웨덴의 수도에 위치한 생트 에릭스 고등학교(S:t Eriks Gymnasium) 3학년의 예술과정 주간 시간표의 과목 구성을 살펴보면 <표-16> 와 같다.

아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 고등학교 시간표와 과목 구성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필수기초과목을 포함하여 미술과목에 수업시수가 비중 있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과목 구성만 보아도 학생이 선택한 프로그램의 특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특히, ‘현대 미술’과 ‘이미지와 디자인’, ‘유리와 세라믹’등 전공과목은 대부분 두 시간 이상의 블록타임제(Block-time)제를 적용하여 충분한 수업시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6> 생트 에릭스 고등학교(S:t Eriks Gymnasium)수업시간표

	Måndag 5/11	Tisdag 6/11	Onsdag 7/11	Torsdag 8/11	Fredag 9/11
08:00			08:00		
30	08:30	08:30	<b>자연 과학</b> (Natural Science)	08:30	08:30
09:00	<b>미학과 창작</b> (Aesthetics & Creation)	<b>영어</b> (English)		영어 그래픽 커뮤니 케이션	<b>이미지와 디자인</b> (Image & Design)
30	09:45	09:45	09:25	독 일 어	
10:00	09:55	10:00	<b>현대 미술</b> (Contemporary Art)	10:00	
30	<b>자연 과학</b> (Natural science)	<b>현대 미술</b> (Contemporary Art)		<b>이미지와 디자인</b> (Image & Design)	
11:00	11:10	11:25			11:10
30		<b>종교</b> (Religion)			<b>멘토링 시간</b> (Mentoring Time)
12:00	11:55	12:40	11:55	12:30	12:25
30	<b>사회 과학</b> (Social Science)				
13:00	13:10	13:20		13:25	13:20
30		<b>미적 체험</b> (Aesthetic Activity)		<b>현대 미술</b> (contemporary art)	<b>프로젝트</b> (Project)
14:00	13:25	14:35			
30	<b>직장생활</b> (Working Life)			<b>영어</b> (English)	
15:00	14:50			14:50	
30	컴 퓨 터 와 텍 스 로 지				
16:00	16:05			16:05	
30	유 리 와 영 어 그 래 픽 통 신 독 일 어 스 웨 덴 어				
17:00	17:20				

## 5) 평가제도

오늘날 세계 각국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고 국가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평가와 질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 스웨덴 역시 국가 수준에서 성취기준에 근거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학교 현장의 평가가 목표-내용-방법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기준을 통해 성취 기준에 제시된 내용과 행동 수준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취했는가를 구분하여 진술해 줌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높

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sup>24)</sup>

양국의 문서상에 제시된 평가에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한 결과 두 나라 모두 결과나 성취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 평가’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한국은 제7차 교육과정 이래 학생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고려하고자 수행평가를 도입하여 평가하며,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행평가의 방법으로는 관찰법, 토론법, 포트폴리오, 서술형 및 논술형 검사법, 연구 보고서법, 실기 시험, 구술 시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국가 수준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융통성 있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상·중·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각 단계의 평가 기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반면, 스웨덴의 고등학교 평가방식은 2011년부터 A-F 6단계로 개정되었다. 통과등급인 A-E 5등급 중 A, C, E 세 등급에 대해서는 한국의 상·중·하 등급과 마찬가지로 국가 수준에서 등급별로 요구되는 평가 기준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상·중·하 수준으로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는 B와 D의 사이 등급을 사용하여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등급은 수학이나 과학과 같이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인문·예술 과목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스웨덴의 평가 등급에서 실패를 하거나 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의 시험을 통해 재평가의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스웨덴의 교육과정에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졸업 작품(diploma project)에 대한 평가가 있다. 이는 학생이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하여 완성해 가는 자기 주도 학습으로써 과정 전반을 통한 배움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고등학교의 마지막 과정인 3학년에서 졸업 작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는 3년 동안 이루어진 학생의 작업에 대한 수행평가인 것이다. 기존의 교과과목에 적용되는 6단계가 아닌 2단계인 통과(pass) 혹은 실패(Fail)로 평가되며

---

24) 교육과학기술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평가기준, 2009

졸업 작품을 통과하기 평가 기준은 크게 ‘사실과 이해’, ‘기술’, ‘평가능력 및 접근방식’ 세 가지에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때 사용되는 평가방법은 보고서 작성법, 발표법, 토론법등을 활용하며, 보고서는 모두 영어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 6) 대학진학조건

한국과 스웨덴은 미술 대학진학제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은 대학진학을 위한 입학시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술대학교에 지망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 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학교 미술 수업 교육이외에 별도로 학원 수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곧 학교 미술교육과 대학입시미술이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정되면서 학생진로와 연계된 선택의 폭이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시위주의 과목에 밀려 오히려 미술과목을 축소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을 간다. 이는 대학 입학에 대한 경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미술 교육에서 지향하는 창의적, 심미적 인간 전인교육은 외면당하게 된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일부미술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획일적이고 기계적 실기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25)

반면 스웨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40% 만이 대학에 진학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실력을 고려하여 대학에 지원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의 합격률이 높은 편이다. 스웨덴에서 대학 진학하기 조건은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며 자신의 이때 전공과 관련된 과목 이수를

---

25) 김유미, 입시 미술 사교육 체제의 문제점과 미대입시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2011

조건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만약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평생교육기관인 'Komvux'라는 성인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여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대학입학제도는 대학입시가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스웨덴에도 대학진학시험이 존재하는데 이 경우는 고등학교 성적이 많이 미달 되는 학생에게 기회를 주기위한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이 시험은 극소수의 성인 학습자들이 응시한다고 한다.

스웨덴 고등학교에서 미술교육과정을 선택한 학생은 3년 동안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배우게 된다. 또한 졸업할 때쯤이면 학생마다 자신의 졸업 작품을 완성하여 대학에 적합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게 된다. 각 대학마다 요구조건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미술대학은 한국의 실기 시험의 결과 중심평가가 아닌 학생의 포트폴리오나 내신 등을 입학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졸업 작품을 비롯하여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운 학생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제작되기 때문에 한국에서와 같이 대학진학을 위한 치열한 경쟁과 사교육은 존재 하지 않는다.

## 2. 개선방안 연구

우리나라는 제7차 교육과정 이래 2차례의 개정을 통해 학생의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였지만 교육과정 편제나 시수 등에서 여전히 학생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이다. 주요과목이 입시에 맞추어 편중되어 있고 미술을 비롯한 예술과목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교육과정 문서상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부터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7차 교육과정부터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개정을 거듭하여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전면적으로 선택교육과정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분석 국가인 스웨덴의 학교제도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부분의 일치일 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의 편성과 운영 면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즉, 스웨덴의 교육과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선택교육과정이지만, 교육 내용이나 교육 계획은 물론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도 상당히 다양하다. 물론 스웨덴의 이러한 교육과정은 오랜 시간의 노력과 교육개혁으로 완성된 제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여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미술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미술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충분한 수업시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현행 교육과정 미술과에서 다루는 교과 내용은 1학년 공통과정에서는 미적체험, 표현, 감상의 세 영역으로 나뉘며 각 영역은 서로 연계성을 갖도록 구성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학습 내용들을 통해 미적 감수성, 창의적 표현 능력, 비평 능력, 미술 문화의 향수 능력과 태도를 목표로 미술수업이 진행된다. 목표는 이상적이며 내용 체계는 방대하여 현행 고등학교 1학년 미술 수업시수인 일주일에 50분 수업으로는 목표달성에 턱없이 부족하다. 집중 이수제를 시행하는 학교라면 일주일에 두 시간씩 한 학기에 몰아서 수업할 수 있지만 이는 미술교육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못한 제도이다. 더구나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교자율화 계획으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20%범위 내에서 교과 시수의 증감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입시위주 교육의 흐름으로 보아 자율화는 비주지교과인 미술과목의 수업시수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가가 목표한 교육과정의 내용을 소화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수업에 그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감수성이 풍부한 청소년기에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

에 불균형을 가져와 바람직하지 못한 성인이 사회를 잠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충분하지 못한 수업시수는 현행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구현 되어야 할 구성 방침으로부터 동떨어져 이상적인 문서상에 머무는 교육과정이 될 우려가 크다. 공교육의 부족한 수업시수로 인해 미술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결국 사교육을 선택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과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인 것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예술 교과와 기본시수는 보장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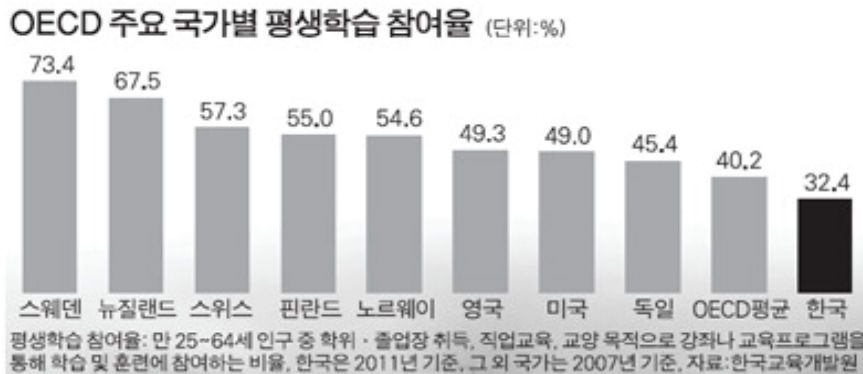
둘째, 미술선택과목을 다양화하고 예술 교과군을 통합한다.

한국의 교육과정이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뀐 내놓았던 기본 방향 중에 하나인 학생의 적성·능력·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에 있었다. 이에 미술교과에 처음으로 ‘미술과 생활’이 선택과목으로 생겨났지만 한 과목에 불과하여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를 시작으로 2007 개정에서는 ‘미술과 삶’, ‘미술 감상’, ‘미술 창작’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2009 개정안에서는 일반과목과 심화과목을 포함하여 10과목으로 늘어났다. 이는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나 스웨덴의 선택과목과 비교해 볼 때 과목 수와 그 범위는 제한적이다. 특히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되었던 시각문화, 영상문화, 공연문화를 중심으로 교과내용뿐만 아니라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로써 새로운 시각문화를 이해하고 비평하며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미술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통해 미술문화 사조에서부터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영상 미디어를 통한 시각미술문화의 확장 등 넓어져 가는 영역을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과목을 개설하여 현재와 과거를 이어 학생이 오늘을 더욱 만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택과목의 영역은 미술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입시경쟁을 완화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세계 최고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학력주의 풍토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연례행사처럼 학생들은 일제고사를 치루고 진로나 적성은 뒤로 한 채 점수에 맞추어 대학을 지원한다. 물론 이러한 획일적인 제도에서 벗어나고자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창의적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입시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입시미술의 틀에 갇혀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 될 것이다. 반면, 스웨덴에서 대학진학의 의미는 한국과 사뭇 다르다. 다음은 2012년 9월 19일자 한국일보 10면에 실린 『선진국처럼... 대학 이전 평생교육에 눈 돌릴때』 라는 기사의 일부이다.



우리나라 평생학습 참여율 대학 진학률의 절반 못 미쳐

스웨덴 등 선진국은 반대

12년 후 고졸생 25만명↓ 대학 3분의1 문 닫을 판

"현행 대학평가에 평생학습 지표 도입해야"

고교 졸업 후 3년 안에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약 43%)이 절반도 안 되는 스웨덴. 그러나 스웨덴의 평생학습 참여율(만 25~64세의 교육참여율)은 73.4%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자신이 하고 싶은 학문이나 직업교육이 있으면 다시 교육을 받는다. 대학진학률보다 평생학습 참여비율이

더 높은 것은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반면 고교 졸업자의 당해 연도 대학진학률만 71.3%(2012년 기준)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평생학습 참여율이 32.4%(2011년 기준)로 OECD 27개국 중 20위에 불과하다. 사회에 나가기 전 적성을 찾아볼 기회도 없이 고등교육을 마치고 그 후에는 교육 기회가 거의 없다.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한국의 대학교육도 선진국처럼 성인들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대학 평가에도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대학 수는 총 432개인데 고교 졸업생에게만 의존했다가는 10여년 후 100~150개 안팎의 대학이 사라져야 한다. 고교 졸업생이 올해 64만명에서 2024년에는 39만명으로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대학 신입생 5명 중 1명이 30세 이상이며, 미국은 전문대 학생 4명 중 1명이 26세 이상 성인이다. 한국은 전문대학생 중 26세 이상 비율이 지난해 11.4%에 불과...

이 자료는 스웨덴의 높은 평생교육 참여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평생교육참여율을 통해 한국의 경직된 입시위주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사한다. 스웨덴의 대학은 배우고자 하는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한국과 같이 대학입학시험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진로와 적성보다 점수에 맞추어 진학하는 현실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이런 한국의 현실과는 달리 스웨덴은 공부를 하고자 준비된 학생들만이 대학에 들어가는 풍토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에서는 고등학교의 과목을 상당수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자신의 진로나 적성을 뒤늦게 발견하여도 언제나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여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입시교육에 있다. 모두 한곳만을 바라보는 입시경쟁이 아닌 국가가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장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길게 보고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과 교육 선진국 스웨덴의 고등학교 미술교육과정에 대한 비교·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배경 지식을 위해 미술교육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 이해하고 양국 교육제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역사를 갑오경장 이전부터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운영 체제를 탐구하고, 현행 교육과정인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뒤 2014년 시행예정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중점사항을 분석하였다. 비교 국가인 스웨덴 미술교육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한 뒤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양국의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내용을 토대로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 미술교육의 쟁점을 파악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도출된 양국 미술교육과정의 비교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운영 체제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선택교육과정으로 재설정 되었다. 이는 스웨덴의 선택교육과정과 표면적으로 일치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한편, 한국의 고등학교 유형은 다양하며 계열별로 나뉘어져 있는 반면에 스웨덴의 고등학교는 모든 계열이 하나로 통합된 독특한 형태의 통합고등학교이다. 통합고등학교는 교육평등화를 지향한 교육개혁의 결과이다. 또한 평등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스웨덴의 선택교육과정에서 잘 실현 되고 있다.

둘째,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고등학교 미술 교육과정의 수업시수와 선택과목의 수 그리고 예술교과군의 범위와 평가 등급에서 스웨덴과 비교하여 많이 부족하다. 주요 원인으로서는 한국의 입시위주 교육현실로 인한 주지과목에 편중에 있다. 이는 청소년기의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저해하며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에도 어긋난다.

반면, 스웨덴에서 미술교육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은 3년 동안 수업시수의 절반 이상이 미술관련 수업으로 구성되며 그만큼 다양한 선택과목을 통해 밀도 있는 수업이 진행된다. 한국과 다른 큰 차이점은 스웨덴에는 대학입시경쟁이 없으며 어떤 계열을 이수하더라도 학생이 희망하면 대학 진학이 가능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대학진학 조건과 관련하여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에는 미대 입시제도가 존재한다. 게다가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미술수업은 대학진학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결국 사교육으로 보충해야 한다. 반면, 스웨덴에서 미술대학진학에는 포트폴리오나 일부 고등학교 내신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있는 역사 깊은 미술대학인 쿤스트팩(Konstfack)에 입학하기 위한 자격은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와 인터뷰이다. 물론 한국에도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등 학생선발에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대 입시는 존재하고 있다. 스웨덴의 학생들은 별도의 사교육 없이 공교육체제 안에서 다양한 경험과 배움의 결실로 대학에 진학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충분한 수업시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술수업에서 부족한 수업시간은 아무리 훌륭한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이라도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의 주당 50분 수업시수는 미술교과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주지 과목이 중심이 되는 교과구성은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강조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교육과정이 되고 말 것이다. 한국 교육과정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입시 중심의 주지과목에 수업시수가 편중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술 교과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수업시수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예술 교과군을 통합한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시각문화, 영상문화, 공연문화에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시대를 반영하고 더불어 사라져 가는 한국 전통 예술을 계승하기 위해 한옥설계나 전통 악기 제조 등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과목을 추천한다. 이로써 새로운 장르를 창조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의 개념을 바로 잡고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평생교육을 통해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평생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유아에서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친 교육’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된 오늘날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생을 통해 직업과 교육을 몇 번이라도 바꿔가며 자아 성장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토대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고교교육 정상화와 입시경쟁 완화로 이어져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세계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진로를 개척하고 국가와 지구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상을 반영한 미술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단행본>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 미술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  
시 제 2011-361호 「별책13」, 2011
- 김성숙 외8 『미술교육과 문화』, (서울;학지사, 2007)
- 김정희, 『미술교육입문』, (서울; 형설출판사, 1998)
- 임정기, 이성도, 김황기,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서울;예경, 2008)
- 이규환, 『비교교육학적 기초 주요국의 교육제도』, (서울, 배영사, 2010)
- 박두영, 『노벨과 교육의 나라 스웨덴』, (서울, 북콘서트, 2008)
- 박정애, 『포스트모던 미술, 미술교육론』, (서울, 시공사, 2001)
- 박휘락, 한국 미술교육사: 미술교육100년의 흐름, 예경, 1998
- 변광수, 『스웨덴 스웨덴사람들』, (서울, 문예림, 2005)
- 샬로트 로센 스펜손, 『스웨덴 SWEDEN』, (서울, 휘슬러, 2005)
- 코도모 요시코, 『스웨덴 쭉쭉 교육』, (서울, 홍익출판사, 2002)
- 윤건차, 『한국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 (서울, 청사출판사, 1987)
- 한국 교육과학기술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평가기준』,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09)

### <정기간행물 및 학술지>

- 강현주(1998), 「스웨덴의 초·중등학교 미술교사 양성제도」, 교육문화연구
- 김명신 외(2009), 「핀란드·스웨덴 교육현장 탐방단 좌담」, 한겨레21
- 권태선(2009), 「기업이 된 학교의 두 얼굴: 스웨덴 최대 투자회사가 자금 단  
자율학교 군스캡스스쿨란...‘좋은 성적’과 ‘인성 교육’ 엇갈려」, 한겨레  
21
- 권태선(2009), 「‘엘리트주의’에 밀리는 평등 교육: 평등·민주주의에 뿌리 둔

스웨덴 교육, '학교선택제·자율학교·일제고사'물결에 뒤흔들려」, 한겨레21

이태주(2010), 「북유럽 국가의 교육 ODA발전과정과 현황: 스웨덴을 중심으로」, 교육개발, 통권 174호

장형원(2008), 「경쟁하지 않아도 괜찮아: 핀란드와 스웨덴의 중등 교육」, 教育批評 제24호

주간교육신문사(2008), 「복지국가 스웨덴의 학교 교육 시스템」, 教育論評, 제16권 제 185호

이성도(2010),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한국미술교육학회

성태제(2012), 「체육, 음악, 미술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계 국제 비교 세미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유현옥(2009), 「이명박 정부 교육경쟁력 강화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교육철학회

홍순무(1995),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전주대학교 논문집

#### <참고논문>

권성연, 「조선시대 미술교육에 관한 연구: 회화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 교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김유미, 「입시 미술 사교육 체제의 문제점과 미대입시 개선방안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박지혜, 「한국 중학교 미술교육과 외국 중학교 미술교육 비교」,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박상우, 「주요 선진국 고교 교육과정과 장학 지원 체제에 관한 비교 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문진아, 「집중이수제 시행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 연구 : 2009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손영희, 「한국 미술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프랑스의 미술교육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국외 학술자료>

Skolverket(2006). Sweden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Curriculum for the non-compulsory school system Lpf 94.

Skolverket (2012). Sweden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Upper Secondary School 2011.

Bjorklund, Anders et al. (2005). The market comes to education in Sweden: an evaluation of Sweden's surprising school reform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Miron, Gary (1993). Choice and the use of market forces in schooling: Swedish education reforms for the 1990s, Doctoral dissertati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IIE), Stockholm University, Sweden.

Ambr n, M. (2011). A study of how a textbook meets the goals of the curriculum, Sweden.

Adrienne, R. (2008). Making art meaningful: Specifying and recognising learning outcomes in the Visual Arts in New Zealand secondary and Swedish upper secondary schools. G teborgs University, Sweden.

Gert Z. Nordstr m & Christer, R. (1970). Bilden, skolan och Samh llet. stockholm.

<인터넷 참고 사이트>

[http://eacea.ec.europa.eu/education/eurydice/index\\_en.php](http://eacea.ec.europa.eu/education/eurydice/index_en.php)

[http://mediatheque.cite-musique.fr/mediacomposite/cim/\\_Pdf/10\\_40\\_Sweden\\_EN.pdf](http://mediatheque.cite-musique.fr/mediacomposite/cim/_Pdf/10_40_Sweden_EN.pdf)  
스웨덴 국립도서관 <http://www.kb.se/hjalp/english>  
스웨덴 대사관 <http://www.government.se/sb/d/2098>  
스웨덴 링크 <http://www.swedenabroad.com/ko-KR/Embassies/seoul/2/-5/>  
스웨덴 학교교육청 <http://www.skolverket.se/>  
생트 에릭스 고등학교 <http://www.stk.edu.stockholm.se/index.php>  
스웨덴 예술고등학교 정보 <http://www.utbildningsinfo.se/sb/d/134>  
예테보리 예술학교 <http://www.gbgkonstskola.se/english/index.asp>  
쿤스트팍 예술대학 <http://www.konstfack.se>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http://www.ncic.re.kr/nation.index.do>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main.do>  
국회전자도서관 <http://www.이.nanet.go.kr/index.do>  
한국일보 뉴스 <http://news.hankooki.com>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high school art curriculums in Korea and Sweden

Choi, Jin a  
Master s Degree Candidate in Fine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 s University

Today, we live in the digital society and information age of 21st century. We become keenly aware of the necessity of educating talented people who focus more on the future and with the ability of creative thinking. Along with this, as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s are converting toward the direction that values knowledge and cultural education, it is a world wide trend that importance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is even further increased. Moreover, there is the suggestion that "creative talents promotion for future demands" as a key consideration to seek in 2009 revised education courses in Korea. However, unlike Korea's educational vision and this type of world trend, current middle and high school education still has an inflexible education system that put focus on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 Arts education that is the base to develop creativity is shrinking.

Therefore, in this thesis, Sweden, with selection centered education curriculum similar to Korea, was selected as the country of comparison in the analysis. In Swedish education, educators realized the importance of fine arts education from the beginning of mid 19th century, and established a distinctive model and system of fine arts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on arranging measures for effective fine arts education through the comparison analysis of these two countries.

This research is comprised of followings. First, we try to understand the concept and purposes of fine arts education, and features of two country's education systems. Second, in terms of Korea's fine arts education history, we explore the operating system based on education system changes from before "Gapogyongjang" or modern system reform. Third, after effectively analyzing current education curriculum, which is 2007 revised education curriculum, revision direction and key points of 2009 revised education curriculum was also analyzed. Fourth,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Sweden's fine arts education system was reviewed in the historical context. Fifth, comparison research was conducted based on the analyzed contents regarding current education curriculums of the two countries. Sixth, we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issues that are grasping of Korea's fine arts education and stable development.

When reviewing the results of comparison analysis, first, there is one thing in common that both countries are applying selective education curriculum. But types in Korea's high school varied, and divided by affiliations whereas, Sweden has a distinctive type of high school system integrating all affiliations.

Second, when looking from the point of view of education curriculum organization management, there are differences in teaching hours and optional subjects of fine arts subject, and scopes and evaluation ratings of art curriculum group. For teaching hours, 1 hour of national common basic education curriculum, and 2~3 hours of selection oriented education curriculum are given in Korea. In comparison, Sweden has a concept of completing courses not hours

per week, and for three years of high school period, art related subjects should be taken based on individual's taste and preference within total of 1350 credits. For number of selection subjects, Korea's selection oriented education curriculum consists of "Fine Arts and Life", "Fine Arts Appreciation", and "Fine Arts Creation", schools in Sweden provide about 40 of various range of selection, including level of difficulty, and various types of genre depending on schools.

In art curriculum scope, Korea includes two subjects, music and fine arts. In Sweden, the scope is broad and consisting of five subjects including fine arts and design, dancing, fine arts and esthetics, music, and play, and it makes consolidating interaction. For evaluation rating, it consists of three levels such as good, fair and poor, and it is broken down to A to F levels.

Third, there is an entrance examination for College of Fine Arts in Korea related to condition of college entrance. Whereas, condition to enter college in Sweden is portfolio, self introduction, and interview. College entrance takes place based on various experience within public education system without extra private education.

Generated suggestion based on these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sufficient teaching hours should be ensured legally. Second, various selective subjects should be open and art curriculum group should be integrated. Third, the concept of "Life-long education" should be corrected and vitalized.

Fine arts and selection oriented education curriculums should be operated in order to realize desirable human characters by learning subjects chosen by oneself based on creative spirit and artistic skills, pioneering courses,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nation and global community.





